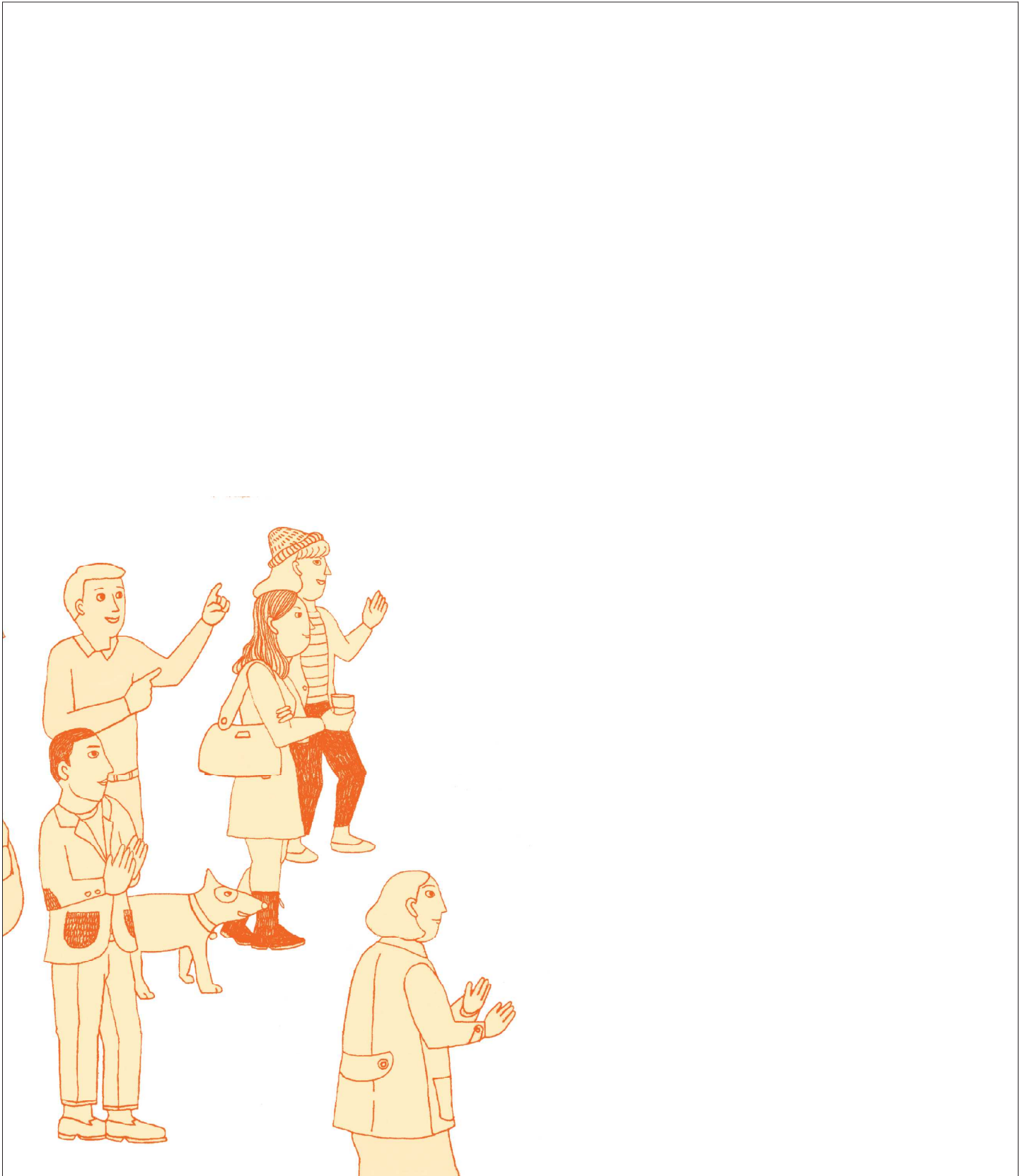


문화관광

탐험대의

광주전통문화록 II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년'문록Ⅱ

발 행 일 | 2012년 12월 4일

발 행 처 |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발 행 인 | 노성대

편 집 인 | 김인정

편 집 기 자 | 정연승 조영임 백은희

인 쇄 | 세영인쇄

글 · 사 진 | 광주문화관광탐험대

김세진 문월식 박재환 박정식 브래드 쉬루 신내호 신장용 앤디 오광오

오재원 이대석 이미란 이춘홍 장지현 정민주 판예타오 한석중

일 러 스 트 | 윤연우

프로젝트담당 | 박수현

발 행 부 서 |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문화관광팀

우)503-020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

광주문화재단 062-670-7400

ISBN 978-89-968403-2-9

ISBN 978-89-968403-0-5 (세트)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년'문록Ⅱ





탐험대원들의 발품이 찾아낸 광주의 속살

문화관광탐험대원의 활동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내용의 깊이를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사, 주부, 작가를 비롯하여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까지 17명의 대원들. 지난 3월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광주의 고살과 동산과 또락을 속속 찾아다니며 돈보기를 든 이들처럼 거기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가 함께 찾고 지키고 나눠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차분하게 파악해 주었습니다. 그 분들의 발품이 이렇게 한권의 책으로 나오게 된 것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광주가 지닌 내면의 모습을 광주사람 뿐만 아니라 광주밖에서 광주를 바라보는 이들과 눈맞춤을 할려는 광주문화재단의 의지가 함께 고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이면서도 광주의 속살을 깊이 보고 공감하며 때론 진중하게 광주를 생각해 보는 계기로서 건문록은 존재합니다.

작년 12월 처음 건문록이 선보였을 때 보여주었던 시민들의 성원과 갈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다시 한번 1,000권의 책을 더 발행하여 나누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격려를 토대로 더욱 심기일전한 탐험대원들은 빗고을에 봄 향기를 온통 전하는 전남대 대명매에서 출발하여 무등산 춘설헌, 옛 도청 앞 회화나무, 광주 지경의 너릿재와 광산 입석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전문 대안학교가 소개되는가 하면, 연인들이 찾을 만한 카페,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전문음식점,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몫을 담당했던 오방 최홍종 목사님의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세대와 지역을 망라해서 읽고 직접 찾아보고 싶은 것들이라 여깁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들고 아직 못 밟아 본 곳들을 찾아 볼 작정입니다. 인문학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고살을 돌아 중외공원 문화벨트를 돌아보기도 하고, 오랫동안 눈길을 주지 못했던 구 도청 앞 회화나무와 눈인사를 하고 아시아 문화마루에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빠격 거리는 테이블에서 유자차 한잔 할 수 있는 베토벤에서 클래식의 운율에 젖어 볼까 합니다.

모쪼록 광주살이의 참 삶이 가득한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건문록Ⅱ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진면목을 공감했으면 합니다.

노성대 | (재)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Contents



아름다워라, 이야기!! 스토리를 품은 마을과 길

자연마을이 예술의 옷을 입다. 성촌마을 · 30

그 선돌은 왜 사람 사는 집으로 들어왔을까? 광산구 입석마을 · 33

창포물에 머리감고, 만드리 풍년제가 열리는 마을. 서창향토문화마을 · 36

세상을 구하고 삶을 지키려는 이들을 생각하는 무등산 의병길 · 39

피고지는 목숨들을 지켜본 고갯길. 너릿재 옛길 · 42

사람들은 이 부처님께 무엇을 빌었을까? 용진산 마애여래좌상 · 46

광주를 향해 팔 벌린 문화사찰. 증심사 · 52

숲 사이로 '시'(詩)를 산책한다. 사직공원 시비 · 55



뛰어라, 심장! 광주문화의 뜨거운 현장 속으로

광주문화재단 무등산의 사계 프로그램 · 60

봄 - 차향 가득한 춘설현의 봄 · 62

여름 - 성산계류탁월도 재현행사 · 66

가을 - 나도 과거시험 도전 · 74

겨울 - 나는 무등산 이야기꾼 · 78

역사를 기억하자! 엄숙하게? 발랄하게! 5·18 레드 페스타 · 84

그해 봄날은 정말 아름다웠을까. 뮤지컬 「화려한 휴가」 · 88

목요일엔 공연장에서 데이트하자!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 91

유년의 추억을 예술로 되살리다. 사직공원 아트쥬 · 94

추억은 예술이 되고, 사직공공예술 프로젝트 · 97

페스티벌 오! 광주의 「브랜드공연축제」 · 100



피어라, 광주! 꽃과 나무가 있는 풍경 속으로

숲, 미술관, 박물관으로 이어진 문화벨트. 중외공원 · 120

마음을 채우는 비밀의 화원. 조선대학교 장미원 · 123

묵묵히 세월을 견뎌온 나무들에게 광주를 묻다. 구도청 참느릅나무,

회화나무 전남대학교 병원 느티나무 생육상태조사 · 126

도시와 농촌, 오늘과 옛날 사이에 있는 광주호 호수생태공원 · 129

깊고 아늑한 품에서 힐링하다. 무등산 편백숲 · 132

아슬아슬 수중보를 건너 만나는 신세계. 송산유원지 · 135

전쟁고아와 청소년들을 품어온 곳. 양림동 충현원 · 137



정겨워라, 도란도란! 차와 사람이 있는 풍경

- 타인의 취향을 인정하며 조금 느리게! 인문학 카페 카시오페아 · 146
- 사랑을 실천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어비슨 카페 · 149
- 그림엽서같은 무등산과 마주하는 찻집, 카페 티브라운 · 152
- 매일 저녁이 라이브 콘서트, 달세노 · 156
- 핸드밀 커피가 있는 예술인들의 사랑방, 살롱 드 미자 · 159
- 세월이 가도 옛날처럼 있는 그 곳, 고전음악감상실 베토벤 · 162



품어라, 문화 광주문화의 인큐베이터를 찾아서

- 그 거리엔 그리움이 있다. 공동 예술의 거리 · 172
- 그날을 기억하는 금남로의 기념관, 가톨릭센터 · 176
- 우리 동네에도 이런 박스 하나 있었으면! 아시아문화마루 쿤스트 할레 · 180
- 뒤집어야 미래가 보인다. 청소년 문화의집 & 래미예술학교 · 184
- 만지고 두드려보는 살아있는 박물관, 빛고을국악전수관의 국악박물관 · 187
- 운림동 아트 밸리의 중심, 광주 전통문화관 · 189
- 고향집 안마당처럼 놀기 좋은 곳, 광주시립 민속박물관 · 191



놀라워라, 이 맛! 광주의 맛 집 탐험

- 간판도 없이 입소문으로 10년! 자연식당 · 198
미국 음식이 궁금해요? 궁금하면 알리웨이! · 201
불판낙지요리 맛보며, 불꽃같은 역사를 떠올린다. 5 · 18 낙지전문점 · 204
손맛과 가격에 두 번 감동하는 집. 내일 또 식당 · 206
닭불고기의 진수를 보여주는 수궁 · 210
보리밥과 나물의 환상조합. 벽오동 보리밥정식 · 212
맛을 좀 아는 이들의 40년 단골집. 득량집 · 214
세 번 구워 만드는 명품 숯불갈비. 부영숯불갈비 · 216
녹용소스에 찍어먹는 특제 보양식. 섬마을 자연산 봉 바다장어 · 218



그리워라, 사람들! 광주문화를 일구는 사람들

-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오방 최홍중 목사 · 222
전라도 흙냄새를 달고 다니는 사람. 향토지리연구가 김경수 · 226
일평생을 먹과 살아온 우리시대 선비. 목운 오견규화백 · 230
돌위에 마음을 새기다. 효천 조정숙 · 234
'지역'을 책으로 만들어내는 문화일꾼. 도서출판 <심미안> 송광룡 대표 · 238
변치 않는 열정과 감동. 우도농악 명인 정득채 · 241
대동세상 만들고픈 지역 문화지킴이. 대동문화재단 조상열 대표 · 244

지친 삶을 힐링해 줄 선물이 될 〈광주견문록 Ⅱ〉



요즘 여행을 생각하는 이들이 꼽는 중요한 요소가 힐링이라고 합니다. 경쟁에 치이고, 밥벌이에 치인 일상을 위로받고 치유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생활에 쫓기는 이들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여행을 떠나기도 쉽지 않은 노릇이지요. 마음은 굴뚝같아도 생활에 발목이 잡혀있는 것을 어찌겠습니까.

그럴 때, 꼭 필요한 책이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나온 광주견문록 I은 받아보신 분들이 “한 권 더 없느냐?”고 물어오는 책이었습니다. 요즘은 맛집도 신문기사보다 블로거들의 평을 보고 찾아간다더니 시민들로 구성된 탐험대원들의 감각과 판단을 믿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을 보고 간재미 요리집에 가보았다는 사람, 찻츠카페에 들러보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민들끼리 우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감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에 흐뭇했습니다.

광주견문록Ⅱ는 작년의 것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보고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명소와 맛집, 멋집, 멋진 광주사람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문화관광탐험대원 열일곱명이 매주 광주의 곳곳에 발자국을 남긴 것입니다.

일상을 풍요롭게 해줄 지역 문화공간이나 프로그램, 역사와 스토리를 간직한 문화마을이나 명소, 삶이 행복해지는 맛 집 목록 외에도 심신에 깊이 쌓인 피로를 달래줄 힐링코스들이 소개되어있습니다. 우리가 보고도 지나쳐 버렸던 무등산 편백숲과 도심의 나무들, 그리고 공원산책로와 중외공원 문화벨트, 너릿재 공원 등이 그것입니다. 자연이 주는 깊은 위로가 있는 곳, 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움을 지닌 곳들이 호명되어 있습니다.

돈 들여서 멀리 가야만 여행은 아니지요, 마음을 비우고 만나는 광주의 구석구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책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삶에 지친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광주를 찾는 분들에게 가이드 북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선정 | (재)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광주문화관광탐험대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광주!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열정과 호기심으로 탐험대 출발!





길 위에 나서기 전, 지도를 만들었던 시간
어디로 가서 무엇을 만날까?

광주는 이야기였구나!
역사요, 예술이었구나! 실감했던 여정들



길동무들과 친구가 되고
사람의 온기는 여정의 고단함도 녹여냈다.

광주의 맛과 멋, 그리고 사람들
그 뜨거운 만남을 잊지 못하지!



만나볼수록 배울 것이 많고
알아갈수록 정겨운 땅, 광주 광주사람들.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이 세상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길 위에서 세상을 만났다.
광주를 만났다.

이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를 깨달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걸었기에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보았다. 느꼈다. 만났다.
잊을 수 없는 광주의 시간들,
어제를 넘어 오늘 내 가슴으로 들어온 광주.

가슴 뜨거운 광주 사람들,
역사를 품고 지역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우리는 마치 역사의 목격자처럼
나무 앞에, 마을 앞에 서있곤 했다.

광주문화관광 탐험대



박수현

광주문화재단 문화관광팀 근무.
탐험대 활동을 통해 광주에 보물 같은
공간이 있음을 발견했다. 내가 광주를
이렇게 모르고 있다니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했던 결과물을 모든 사람에게
선보인다니 뿌듯하다!



전고필

광주문화재단 문화관광팀장.
주말도 없이 달려온 탐험대원. 항상 이만하고, 고맙다.
때론 탐험대 활동이 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기
탐험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2기 탐험대원의
기술집이가 되었기에 2기 탐험대원의 활동은 더 의미있었다.



박재완

사진여행 작가로 무등일보에
'박재완의 기차여행 칼럼'을, 컬쳐인에는
'길따라 강따라'를, 광산신문에
'사진여행 작가 박재완과 함께 하는
여행'을 연재하고 있다. 우리지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탐험대원이 되기위해
공부를 더 하고 싶다.



신장용

광주기독병원에서 일하지만 광주의 모든
문화예술행사를 찾아다니는 부지런한 사람!
1기 탐험대원 대장으로 활동했고,
2기 때도 오빠, 형으로 역할을 했다.
마음만은 늘 20대. 앞으로는 쪽쪽 광주의
곳곳을 마헤치고 싶다.



이춘홍

광주시 문화관광해설사이자 사진가.
탐험대원 만형으로서 대원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덕분에 한층 젊어진 느낌이 든다.
탐험대원들 모두 나이를 떠나
젊고 맑은 영혼들이네



브래드 Bradford Keith Evans / 미국

한국에 온지는 5년. 탐험대 활동을 하기 전부터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행사에 관심이 많아
인터넷을 통해 문화예술행사가 있는 곳이면
무조건 갔다. 광주 인터넷 방송에서 나오는
“웰컴투광주”에 출연하고 있다.
열심히 탐험해서 광주의 숨은 곳을 알리는
광주의 얼굴 브래드가 되고 싶어



오재원

대학 휴학생인데도, 문화 예술 특히 소통과
공간창출에 관심이 많다.
탐험대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생각 없이
지나쳤거나 몰랐던 명소 및 숨은 공간들을 알게 되어
광주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사람도 좋았고 새로운 문화를 알게 되어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다.



쉬루/중국

광주에 유학으로 온지 4년.
전남대학교 회계학과 석사과정 학생.
내 고향은 바로 광주의 우호자매도시
광저우(广州)라서 광주에서도 친절감이
많이 느껴진다. 한국에 있는 동안
가볼만한 곳을 하나하나 모두 탐방하고 싶다.
문화관광탐험대 참여로 제 소원이
더 빨리 이뤄질 것 같기도..



앤드 Andrew Clendinning / 캐나다

GIST(광주과학기술원)에서 영어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어가 서툴러 탐험대원들
도움을 받으며 활동을 했다. 내가 아는 공간이
나올 때면 굉장히 신이 났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공간이 나올 때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들으며
노력했다.



이미란

책이랑 짝꿍하면서 아이들의 생각과 꿈이
 뽕뽕 솟아나게끔 아이들과 책이랑 뒤엉켜
 신나게 놀고 있는 독서지도사이다.
 밭길 머무는 곳마다, 숨결 닿는 곳마다 우리지역
 문화가 곳곳에 오롯이 자리잡고 있음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다.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문화를 줄이차게 찾아 나설 것이다.



장지현

초등학교 영어선생님이다.
 한 곳에 가만있길 못하고 이리저리
 쏘다니며 도전할 거리를 찾고 있다.
 잘 부쳐진 빈대떡처럼 서로 어울린 해찰의
 미학탐, 브레드, 인디, 판예타와, 쉬죽,
 민주, 신장영, 문월식, 박재완 선생님,
 모두 잊지 못할듯, 활동하면서 생긴
 애뜻한 광주에 대한 마음, 간직하리라.

판예타오/중국

전남대 경영학과 대학원에 다닌다.
 광주에 온지 4년이 되지만 현지의 풍습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다.
 탐험대 활동을 통해 역사적 명소를
 찾아가길뿐 아니라 명소, 명인, 명품까지
 많이 발굴했다. 대원 여러분과 가족처럼
 지내다보니 고향이 그리지 않았다.



한석중

타고난 얼썩 사목국장. 지역 문화를
 알아야 풍물굿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짚을 듣고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무 하나에도 이야기가 숨어 있고, 옆집 아저씨라
 생각했던 분이 광주를 대담하는 예술가시고,
 때론 지역문화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김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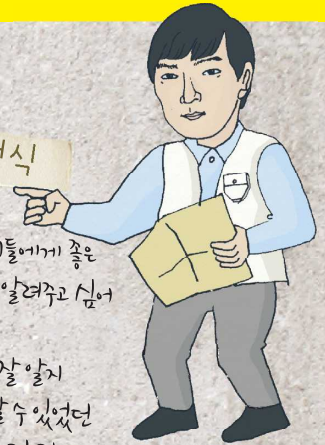
수백 년을 살아온 노거수가 간직하고
 있는 민속, 문화, 마을 숲의 의미를 엿들어보고자
 남도의 숲과 나무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가만가만 찾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숲해설가이다. 광주 구석구석을
 돌면서 건물 속에 묻혀있는 작은 보물들과
 만나는 설렘을 느꼈다.



신내호

관광협회에서 일하는 내게
탐험대원 활동은 공부도 되고
사람을 사귀기도 하는 소중한
체험이었다. 주말도 없이
벌판 팔아가며 열심히 일한
대원들 과bearing했다. 벌써부터 그립다.

박정식



고등학교 교사.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학습 장소를 알려주고 싶어
참여한 탐험대!
광주에 살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곳을 많이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것 같다.



정민주

아직 어린 네살 아가. 미래의
탐험대원으로서 누구보다 패기가
넘치는 탐험대원이다.
언니, 오빠들을 따라다니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미래의
탐험대원으로서 뭘 해야 하는지
느꼈대.



이대석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큰돌 선생님.
영건 실타래를 풀듯 탐험을 하나,
어찌지 실타래는 더욱 꼬여가는 듯?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음으로써말로
탐험이고, 인생이 아닐까?



문월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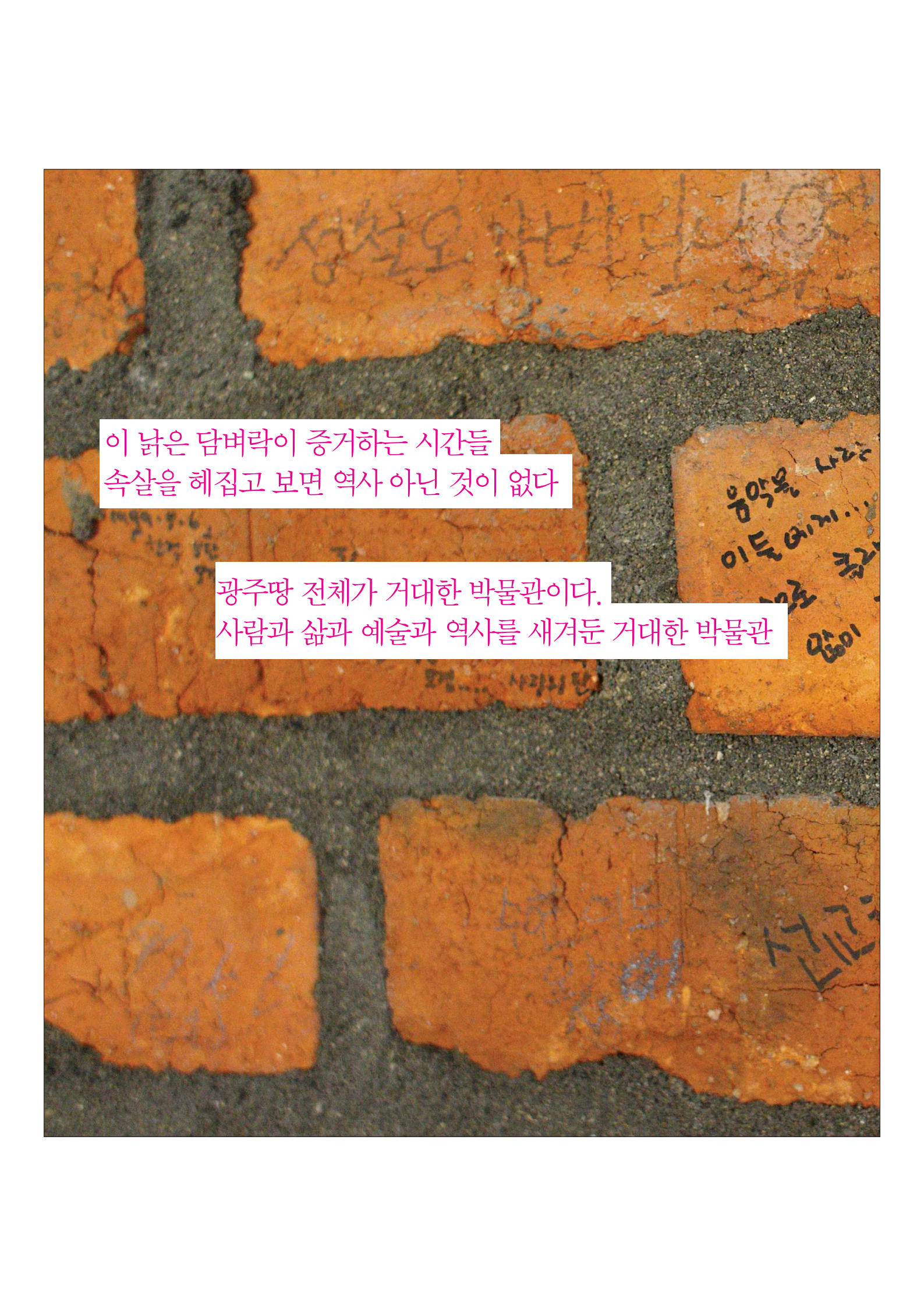
대한민국문화재청 헤리티지채널 사진가.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픈 전라도 종놈이다.
의향, 예향의 압도문화를 사진으로
담아 널리 알리고 싶다.

오광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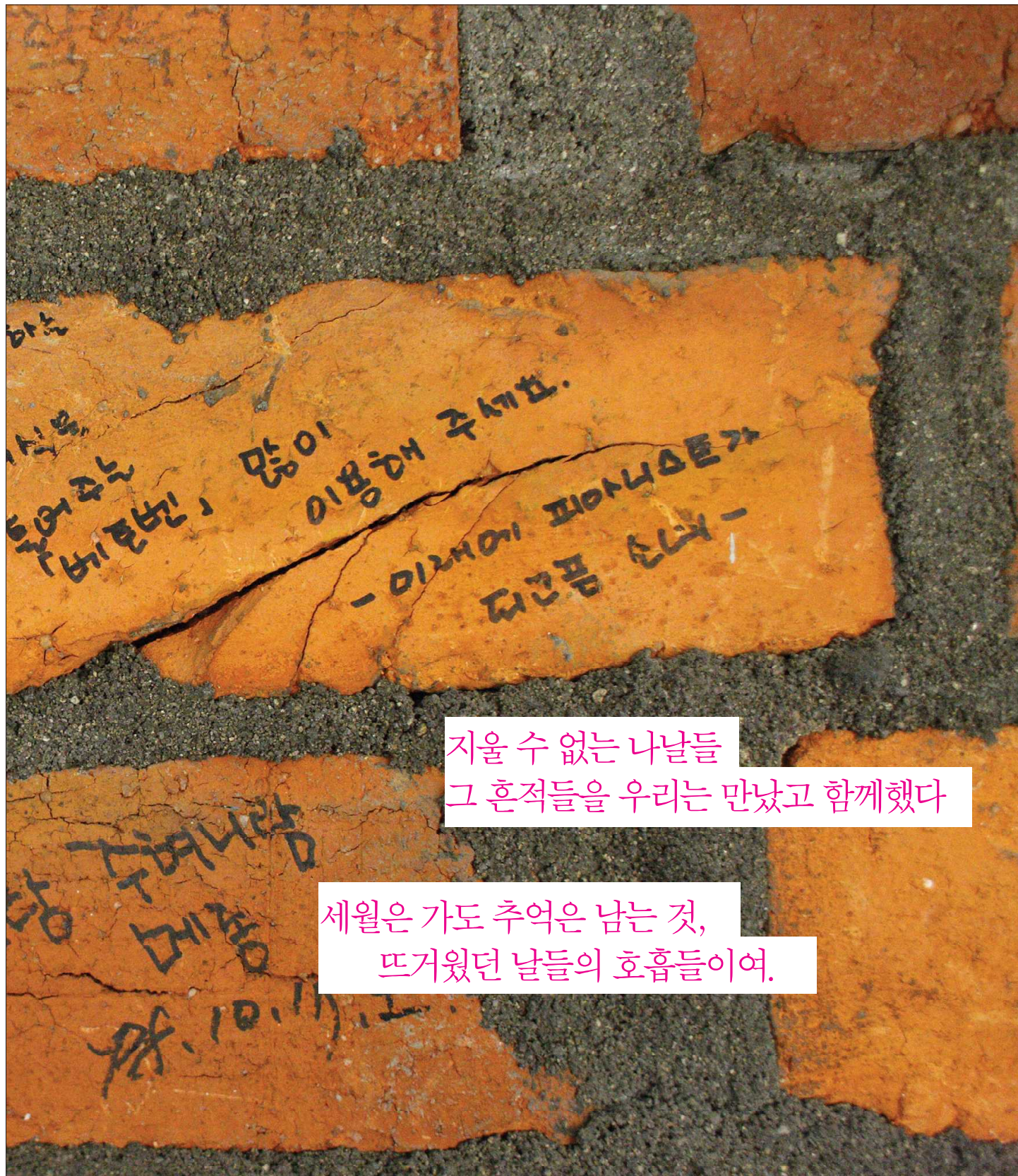
서울포스트신문 기자이며
세 아이의 어머니.
탐험대원 활동을 하면서 광주에
대한 애착이 더 깊어졌다. 세게인이 주목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알려내는 탐험 활동 만만세!

광주문화관광
탐험대



이 낡은 담벼락이 증거하는 시간들
속살을 헤집고 보면 역사 아닌 것이 없다

광주땅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이다.
사람과 삶과 예술과 역사를 새겨둔 거대한 박물관



지울 수 없는 나날들
그 흔적들을 우리는 만났고 함께했다

세월은 가도 추억은 남는 것,
뜨거웠던 날들의 호흡들이여.





1

아름다워라,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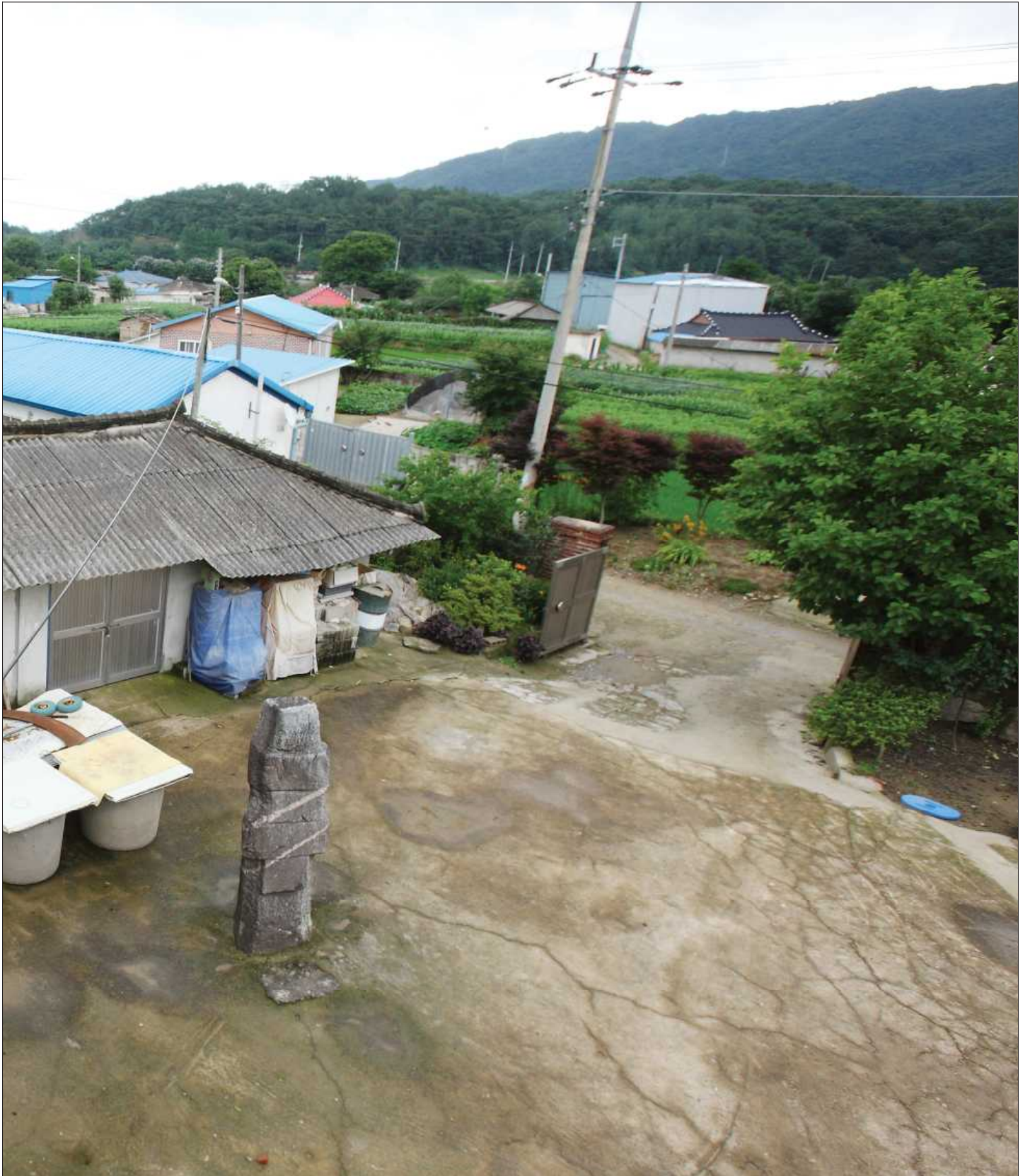
스토리를 품은 마을과 길



광주는 하나의 대륙이었다.
역사의 바다와 삶의 내륙을 간직한.

길 위에 서면 옛날이 보인다.
그래서 나아갈 내일도 보인다.

흘러가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라.
우리의 한시절도 이렇게 흘러간다.



1 자연마을이 예술의 옷을 입다

성촌마을

햇볕 양명하고 바람 거센 날, 도심 속에 몇 남지 않은 마을 중의 하나인 성촌을 찾았다. 의재 선생의 제자와 차밭을 가꾸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성촌마을은 현재 70여 가구 150여명 남짓 주민들이 지키고 있는 도심 속 농촌 같은 곳이다.

전형적인 배산임수 형국인 이 마을의 입구 좌우로 장승이 서 있었다. 마을 우측으로는 지산유원지 뒷편에서 흘러오는 물길과 좌측으로 증심사 방향에서 오는 두 물길이 만나는 합수지점 언덕에 무등산의 일부처럼 안겨 있지만 계곡은 행하니 비어터워 있어서 마을을 보호할 수호신이 필요했을 것이다. 게다가 무등산 장불재를 넘어 오는 화순사람들에게 이정표 구실을 감당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풍찬노숙하면서 마을을 지켜오던 장승은 1981년 마을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근처 학운초등학교로 옮겨졌다. 그 만큼 마을의 공동체 의식이나 가치관이 변화한 것을 상징하기도 할 터이다.

학운초등학교에 있는 장승은 예전에는 정원석의 일부처럼 서 있다. 이제 본관으로 들어가는 입구 양안을 호위하며 어린 학생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표로서 장승의 역할은 중단되고 말이다.

마을의 담벼락 마다엔 벽화가 그려져 있다. 소나무와 호랑이를 그린 민화나 그것을 습작한 흔적도 있다. “노력하면 성공 있다. 락심말고 노력하자. 여러분 감사합니다”란 글귀와 난초가 정겹다.





모든 것이 변해가는 세상, 손택수의 “앙큼한 꽃”이란 시처럼 이 골목에 싸움이 부쩍는 건 평상이 사라지고 난 후 부터라는 말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남아있는 이들은 또 한 마을을 그렇게 보듬어 가고 있었다.

많은 것이 삼시간에 변해가는 세상에서 그래도 학운동이란 말하지 않고 성촌마을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힘 안에 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다.

▶ 성촌마을예술화 작업이야기

무등현대미술관(관장 정송규)은 이마을 주민과 함께 마을 곳곳에 예술의 색을 입혀왔다. 낡은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고, 숫대를 세웠다.

‘성촌예술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윤남웅(회화) · 홍희란(리폼구성) · 박일정(도자기) · 정경택(영상) · 자크 라판타나티라는(Jakraphun Thanateeranon · 태국 · 영상퍼포먼스)씨가 마을에터를 잡고 들어와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

어린 시절 무등산에서 호랑이를 만났다는 마을 할아버지는 못으로 호랑이를 새겼고, 화가 윤남웅씨가 채색을 도왔다. 마을 실개천에서 고기를 잡았던 할머니는 붕어, 송사리, 자라를 흙으로 빚어 벽에 붙여놓았다. 조병연씨는 마을풍경과 거리를 수목화로 담았고, 강선호씨는 주민들의 초상화를 그렸다. 모든 집에는 작가들이 만들어준 예술 문패도 내걸렸다. 이 문패에는 집안내력과 가훈 등이 담겨있다. 예술을 통해 작가와 주민이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물이기에 더 아름답다.



사진출처 : 무등현대미술관

그 선들은 왜 사람사는 집으로 들어왔을까 **2**

광산구 입석마을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는 길목인 삼남대로변에 있었던 마을. 영춘정이라는 정자와 연못, 주막이 있어 먼 길 나선 이들이 잠시 쉬어가던 마을이었다. 특히 조정에서 지방관직을 받고 부임하는 관리들과 이임하는 관리들은 이 마을에서 상견례를 했다고 한다. 입신양명의 꿈을 품고 한양을 향하던 이들, 향촌관리의 삶을 시작하거나 마감하는 이들의 만감이 교차하던 마을, 광산구 입석마을이다.



*광주광역시 민속자료 제5호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수동 입석마을



‘입석’이라 마을 이름이 붙게 된 건 선사시대 세워진 선돌 때문이다. 예로부터 입석은 마을과 마을을 경계 짓는 표석이자 한해의 풍년을 빌고, 치성을 드리는 오방신 노릇을 했다. 그런데 이 마을 입석은 그 위치나 형태가 특이하다. 마을 입구에 서있는 게 보통인 입석이 가정집 안마당에 떡하니 서있기 때문이다.

광산구 산수동 임형렬씨 집 안마당에 세워진 입석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 생각이 스친다. 마을입구를 지키던 입석이 자신도 사람들처럼 집에 살고 싶어서 걸어들어온 것일까? 아니면 이 집에 살던 꽃다운 처자에 반해 따라 왔다가 그 자리에 멈춰서버린 것은 아닐까?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양새도 유별나다. 보통 입석은 자연석에 원추형이나 원주형으로 남성의 성기나 연꽃 문양을 새긴다. 그런데 이 마을 입석은 화강암을 4등분하여 2단과 4단은 직사각형, 1단과 3단은 정사각형으로 멋을 부렸다. 마치 현대 조각품처럼 각이 잡혀있고 세련미가 흐른다.



6·25 이전만 해도 정월 대보름이면 이 집에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제를 올렸다고 한다. 지금은 집주인이 간단하게나마 제를 지내고 있다. 그래도 사람집에 서있는 까닭에 이 입석은 김장 담그는 풍경, 이 집 식구들 도란거리며 밥먹는 풍경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을 것이다. 선사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입석이 지켜본 삶의 파노라마는 얼마나 뜨겁고 눈물겹고 애뜻한 것이었을까.



3 창포물에 머리감고, 만드리 풍년제가 열리는 마을

서창 향토문화마을

단오를 아시는가. 춘향이 그네를 타는 모습에 이도령이 났을 잃었던 그날이 바로 단오 날이다. 창포뿌리를 잘라 비너를 만들어 머리에 꽂아 두통과 재액(災厄)을 막고, 처녀들은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아 윤기를 더하게 하였다. 남자들은 창포뿌리를 허리에 차고 다니는데, 이는 벽사(辟邪), 즉 사된 것들을 쫓는다는 뜻이었다. 단오날 이런 풍습들은 모두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이제 단오의 그 두근거리는 설렘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단오날이면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쭈다발과 전통탈을 만들고, 수리떡을 만들어먹는 마을이 있다. 어디 단오날 뿐인가. 가을걷이를 앞두고는 만드리 풍년제가 열린다. 오늘을 사는 마을이지만 옛날 풍속이 그대로 남아있는 오늘 속의 옛날같은 마을이 바로 광주 세하동 서창향토문화마을이다.

마을 뒤로는 백마산이 있고, 마을 앞 넓은 들 저편으로는 극락강이 흐른다. 서창들노래는 큰길에서 한참 안쪽으로 들어와야 마을이 보인다. 조선 중기에 형성된 유서 깊은 마을은 임진왜란 때 의병 김세근 장군의 이름을 따 '세동마을'이라고도 부른다. 마을에 한옥이 많아 전통한옥마을로 보존을 하고 있고, 마을 한복판 체험관도 본래 한옥 구조를 갖추고 있던 곳인데 전통문화 · 농촌생활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형문화재인 남도창과 춤, 굿거리는 마을의 오랜 내력이자 멋이다. 들녘이 넓어 들노래가 잘 발달되어있다. 서창만드리 풍년제가 바로 그 유산이다.

문화마을은 양반집 가옥 양식을 본뜬 기와집으로 이뤄졌는데, 대문 앞에서는 '이리 오너라' 하는 점잖은 목소리가 들릴 듯싶다. 다도교육장에 들어서니



* 숙박 및 체험 문의 :
062)373-1365/654-4300







‘죽로지실(竹怒止窓)’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죽로’라 함은 차 마실 때 쓰는 대나무 화로를 이른다. 낮은 다탁 앞에 앉아 문밖을 내다보는 풍경이 아름답다.

마을의 농산물은 물론 향토 먹거리 등도 판매를 하고 있으며 야외 혼례식 장소로도 제공된다. 가족단위 및 국·외 관광객에게 민박장소를 제공하기도 하고 청소년 예절교육 및 다도교육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2004년 12월에 개관을 했고, 총 3,739.2㎡(1,131평)으로 농촌지역의 넉넉한 인심을 맛볼 수 있는 살아있는 체험마을이다. 전통한옥, 향토문화체험관, 가상입체영상체험관, 야은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향토문화체험관에서는 ▲한옥스테이(1박 2일) ▲고운 빛 천연염색 만들기 ▲다도 예절사 ▲전통한옥 장 담그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세상을 구하고 삶을 지키려는 이들을 생각하는 4

무등산 의병길

의병은 정식 훈련을 받은 군인이 아니다. 농사를 짓고, 밭을 일궜던 농민, 짐승을 잡던 백정, 쇠를 다뤘던 대장장이 등 당시를 살던 생활인들이 내 고장,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호미와 곡괭이를 들고 전쟁터로 나선 이들이 바로 의병이다.

무등산 의병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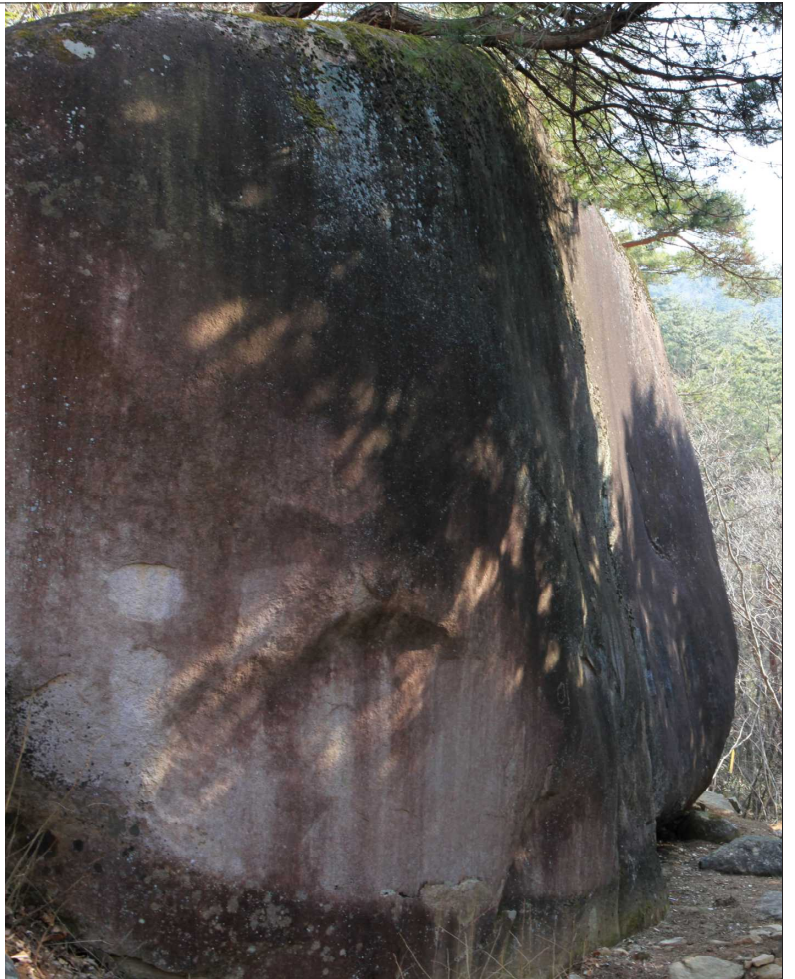
의병길은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의병들의 생활길을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5개월에 걸쳐 복원한 것으로, 풍암제에서 제철유적지까지 3.5km,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구간이다. 길의 중간에서는 원효 계곡과 물이 이야기하듯 쏟아진다는 사당소(瀉塘沼) 등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과 김덕령 장군의 누이 전설이 담겨있는 치마바위 등 이야기가 숨어있는 공간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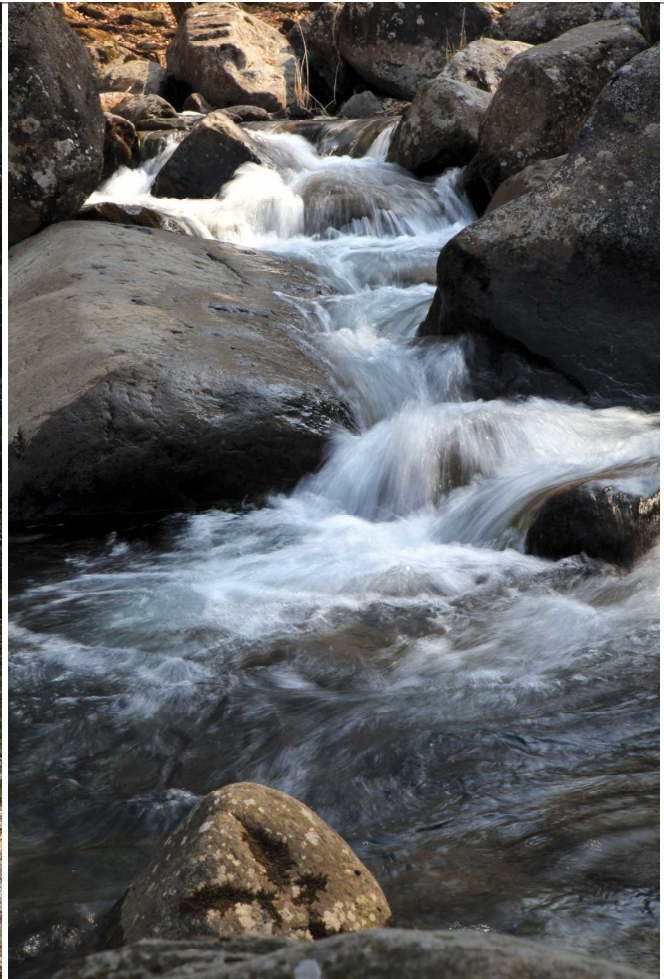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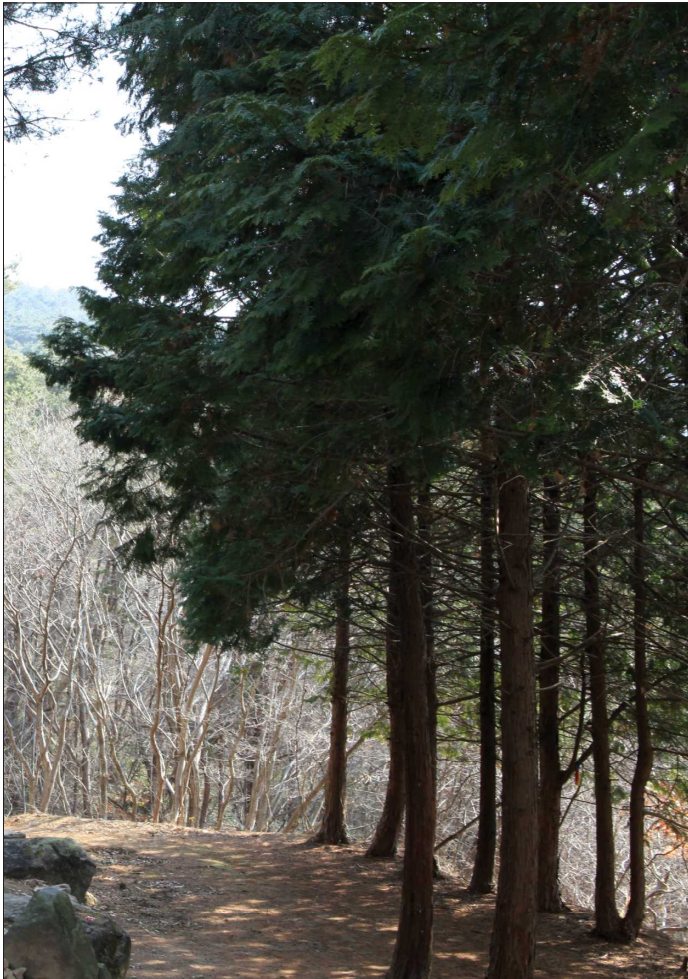
의병길의 첫 코스는, 금곡동 제철유적지다. 제철유적지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던 김덕령 장군이 무기를 만들었던 장소로, '주검동'이라고도 불린다. 제철유적지에는 땅바닥 곳곳에 지금도 크고 작은 쇠뿔(쇠슬러지)이 무수한데, 당시 얼마나 많은 무기가 이곳에서 만들어졌을지 짐작이 간다.

의병들은 제철유적지에서 무기를 만들어 군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고 한다. 제철유적지를 나와 원효계곡을 따라 걷는 길, 몇 백년을 살았을 법한 소나무를 만났다. 계곡 물이 떨어지는 소리에 발소리를 감추며 숨죽이고 걸었을 그 길, 소나무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듯 그때도 그들을 지켜봤을 것이다.

원효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사당소(瀉塘沼)가 있다. 한자를 풀이하면 '물이 쏟아지는 샘'이었는데 이름의 유래는 알 수 없다고 한다. 규모가 작고 얕아, 가까이에서 손을 담가볼 수 있다. 하지







만 방심하다가 발이라도 미끄러지면 허리까지 잠길 듯 하니, 조심하는 게 좋을 듯하다.

사당소를 지나면 치마바위를 만날 수 있다. 모양이 치마처럼 펼쳐졌다고 해서 치마바위라 부르는데, 치마바위 아래에는 아들을 바라는 촛불이 밝혀져 있다. 이 치마바위에는 김덕령 장군의 전설이 있다. 김덕령 장군에게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로 말하자면 어느 장정 못지않게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였다고 한다. 김덕령이 제 힘만 믿고 거들먹거리는 것을 보고, 누이는 제 동생을 혼내고자 씨름대회에 남장을 하고 출전해 보기 좋게 김덕령을 이겼다고 한다.

무등산을 오를 때마다 느낀다. 산은 하나인데, 산을 둘러싼 이야기는 수백, 수 만가지라고. 무돌길과 옛길에 이어 걸어본 의병길. 요즘 같으면 '내 일이 아니다'라며 내 살길만 도모했을 터인데, 이 길을 걷는 내내, 나 하나의 목숨이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 길로 나선 의병들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5

피고지는 목숨들을 지켜본 고갯길

너릿재 옛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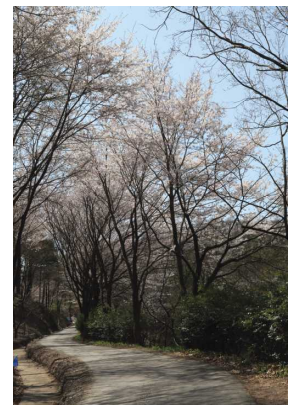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나 역시 너릿재는 광주에서 화순을 넘어가는 터널로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화순의 진산인 만연산과 안양산을 거쳐 무등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백두대간 호남정맥의 지맥을 따라 형성된 이 고갯길은 지난 1971년 너릿재 터널이 완공되기 전까지 화순, 보성, 별교, 장흥, 고흥 사람들이 광주를 오갈 때 넘어가던 고갯길이었다. ‘광주에서 뺨맞고 너릿재에서 눈 흘킨다’는 말은 아마도 시골에서 올라온 이들이 광주땅에서 고생한 것을 너릿재를 넘어가며 털어낸 데에서 유래가 되었지 싶다.

‘너릿재’라는 지명은 1757년 제작된 ‘여지도서(輿地圖書)’ 도로편에 北距光州界板峙距路九里(북거광주계판치거로구리)라는 기록으로 등장한다. 이후 출간된 읍지에도 ‘판치(板峙)’라는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판은 우리말로 널이라고도 하는데 구전에 의하면 옛날 깊고 험한 너릿재를 넘던 사람들이 산적이나 도둑들에게 죽임을 당해 판, 즉 널에 실려 너릿너릿 내려온다고 해서 너릿재라고 불렀다 한다. 생각하면 눈물겹다. 무엇을 팔겠다고 이고지고 이 고갯마루를 올랐다가 죽임을 당해 저승길로 갔을까.

큰 눈이라도 오면 한동안 길이 끊겼다는 험한 길의 역사는 또 있다. 동학농민전쟁 때는 수많은 농민군이 처형되었던 아픈 현장이었고, 해방 직후 조국 해방 2주년 기념식에 참가하고 화순으로 돌아오던 화순탄광 노동자들이 미군 총격에 학살된 현장이기도 하다. 그뿐만인가. 80년 5월에는 이 고개 아래 주남저수지에서 목욕하던 아이들이 공수부대의 총을 맞아 죽어가기도 했다.

기억할 것이 많아서인가. 험한 역사를 다 지켜본 너릿재는 터널이 생긴 후로도 옛길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최근 화순군이 생태복원을 하며 너릿재







옛길 복원사업을 펼쳐 옛길걷기가 더욱 수월해졌다. 굽이굽이 고갯길 오르는 맛도 있거니와 호젓한 숲길 산책로는 참으로 아름답다.

너릿재 고개를 사이에 두고 광주와 화순의 기온차이가 나나보다. 광주 너릿재 길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띠를 두르고 있으나 화순 방향 너릿재는 꽃이 지고 잎이 올라와 있다. 너릿재를 걸으려면 물과 김밥을 준비해도 좋다. 천천히 걸으면서 다람쥐를 만나고, 나무향을 깊이 호흡하면 좋다.

너릿재공원 승강장까지는 오는 시내버스가 많다. 너릿재 옛길 초입에 젊은 작가들의 예술 창작공간 ‘소아르(SOAR) 갤러리’가 문을 열어 구경거리가 늘었다. 전시공간과 아트숍, 커피숍이 있다.



6 사람들은 이 부처님께 무엇을 빌었을까

용진산 마애여래좌상

해발 349미터의 용진산(龍珍山)은 광주 광산구 본량과 임곡을 나누는 경계에 있는 산이다. 일반인들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은 덕에 산은 원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황룡강이 흐르고, 마을이 있고, 드넓은 농토가 지척인 이 산에 마애여래좌상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용진산 마애여래좌상을 찾아가는 길은 설렌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런 성지를 찾아가는 기분마저 든다.

용진산(龍珍山)의 ‘龍(용)’자는 ‘솟을 용’이고, ‘珍(진)’자는 ‘보배 진’이다. 보배로운 암석이 솟아있는 산이라는 의미다. 산 초입에는 동굴이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전국에서도 이름 있는 금광이 있었던 곳이라더니 그 흔적이지 않다. 예로부터 사호동이 부자마을이라 소문난 까닭도 바로 금광과 관련이 있다.

산어귀에서 100여 미터 정도 올라가자 왼쪽 벽면에 마애불이 보인다. 바위에 얹게 새겨진 불상은 위가 넓고 아래가 좁은 타원형 얼굴이다. 옷은 왼쪽어깨에 희미하게 나타나 있을 뿐 거의 표현되어 있지 않다. 양손을 가슴에 모아 엄지와 중지를 가볍게 맞대고 있다. 앉은 자세는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에 올렸는데 자세히 조각되지 않았는지, 세월에 풍화됐는지 희미하다. 높이 1.17m. 대좌(臺座)와 광배(光背)를 마련하지 않고 불신(佛身)만을 선으로 새겨 놓았다.

세밀하고 정교한 조각은 아니지만, 서민적 소박함이 돋보인다. 불상 위쪽 암벽에 ‘불당일월(佛堂日月) 용진수석(龍珍水石)’이라 적혀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용진산의 물과 돌처럼 영원하리라’라는 뜻이라 한다. 사람들







은 이 불상 앞에서 무엇을 빌었을까. 어떤 간절한 염원들을 이 부처님은 들어왔던 것일까. 마애여래 좌상을 봤다면, '신선이 학을 타고 노닌다'는 뜻의 가학정(駕鶴亭)으로 발길을 옮겨보자. 조선시대, 선조가 피난을 갈 때 벼슬도 없이 보필했던 박경의 공을 치하하여 벼슬을 내리려 했으나, 한사코 사양하자 죽림처사(竹林處士)라는 시호와 함께 지어준 정자다. 정자에 앉으면 멀리 황룡강이 한 폭의 동양화 처럼 아름답다.

역사는 왜 의인들을 내몰았는가 7

경열사 景烈祠

광주에서 87번 버스를 타고 나가면 어느 순간, "여기가 광주인가?" 싶을 정도로 탁 트인 시골 마을이 나타난다. 행정구역은 광주지만 광주 안의 시골 같은 목가적 풍광, 마음이 툭 트이는 시골길을 달려 '죽곡정류장'에서 내린다. 버스가 가는 방향으로 15미터 정도를 더 걸으면 오른쪽으로 아스팔트길이 뻗어 있고 '경열사'라는 이정표가 보인다.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 922

*연락처: 062-266-7032



최영의 홍산대첩, 이성계의 황산 대첩과 더불어 고려때 왜구격퇴의 3대첩으로 불리는 관음포 대첩을 이끌었으나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반대하다가 이곳 무등산 자락에서 여생을 마친 고려말 명장 정지장군을 모신 곳이다.

외사문, 내사문, 경열당 세 개의 단아한 집이 산동성이에 차례로 배치되어 있다. 외삼문을 지나면 내삼문과 경열당이 보이는데, 이곳이 정지 장군을 모시는 사당이다.

'경열(景烈)'이라는 시호를 가지고 있는 정지(鄭地, 1347~1391)장군은 고려 충목왕 3년(1347년)에 나주 남평에서 태어났다. 당시는 왜구의 침입이 심해 장흥과 강진의 마을 사람들이 통째로 화순으로 피신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러한 백성의 고충을 없애고자 한 정지 장군은 무과에 급제한 후, 전라도 안무사가 되고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해군을 조직해 47척의 배로 왜선 120여 척을 물리치는 혁혁한 전공을 올린다.

하지만 정치권은 요동쳤다. 고려말의 혼돈은 극에 달했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이성계가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자리를 지킨다. 결국 돌아온 것은 누명이었다. 결국 옥살이를 하다 4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세월이 흘러 태종 2년에 생전의 공을 인정받아 '경열'이라는 시호를 받고 사패지가 하사되어 현재의 사당을 건립할 수 있었다. 왜 역사는 이처럼 진정한 영웅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일까.

외삼문 아래 오른쪽에는 유물 전시관이 있는데 정지 장군의 갑옷이 전시되어 있다. 갑옷은 보통의 소장품처럼 무덤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어 받았는데 특히 정지 장군의 외손주인 김덕령 장군 또한 이 갑옷을 입고 싸웠다고 한다. 그 사실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

갑옷만이 아니라 민중을 위해 싸우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까지도 물려받았다는 말인가. 후손들은 갑옷 외에도 칼과 활을 물려받았으나 이들은 사라지고 없다한다.

사당 오른쪽으로는 정지 장군과 그 후손의 묘(광주광역시 기념물 제 2호)가 위치해 있다. 부인과 함께 합장묘 했고, 무덤의 형태가 ㄷ자 모양으로 석축을 쌓고 가운데에 봉분을 올린 모양새라 하는 것이 특이한데, 이런 네모진 무덤은 고려 시대 것으로 조선 전기까지 발견된다고 한다.

배산임수의 지형에 위치해 있어 정지 장군의 묘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무등산이 보인다. 마치 신선이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다.

▶ 김덕령(金德齡, 1567~1596)

광주 출생.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의병장 박재우와 협력하여 여러 차례 왜병을 격파하였다. 광주에는 그의 시호인 '충장'을 딴 길 충장로가 있다.

▶ 나주 경열사

정지장군의 고향인 전라남도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에도 정지장군을 모신 경열사가 있으니 두 곳을 다 가보는 것도 장군의 흔적 찾기가 될 것이다.

8 광주를 향해 팔 벌린 문화사찰

증심사

證心寺

광주 사람들에게 무등산이 어머니 산으로 불린다면,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증심사는 어머니의 치마폭처럼 편안한 절집이다. 천년이 넘는 고찰이지만 광주 도심에서 시내버스 한 번이면 찾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무등산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산 쪽으로 걷다보면 숨쉴 좋은 보리밭 식당들과 등산복 판매점들이 북적대는 상가지구를 지나게 된다. 산쪽을 향해 올라가다보면 의재미술관의 아름다운 풍광이 눈에 들어오고, 산길로 접어드는 언덕배기에 일주문이 있다.

산의 초입에 선 일주문을 지나노라면 어쩐지 일상의 번거로움을 잠시 벗어놓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호젓함이 느껴진다. 일주문을 지나 큼직한 돌로 이뤄진 언덕길을 오르면 증심사가 나온다.

절집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입적하신 전 주지 일철스님 때부터 증심사는 늘 시민들을 향해 품을 벌이고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공유하는 절이었다. 산사음악회 <무등산 풍경소리>의 중심에 바로 이 증심사라는 절집이 있었던 것도 그러한 연유다.

‘증심사’라는 절 이름은 기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나 고경명의 <유서석록>에는 ‘증심사(證心寺)’라 하였으나, <중수약사전기>나 <광주읍지>, 절에 보관된 현판에는 ‘정심사(澄心寺)’로 기록되어 있다. 언제 무슨 이유로 ‘증심사’를 ‘정심사’로 고쳐 부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정심사’는 절 이름은 19세기 이후에 등장한다.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

* 연락처 : 062-226-0108

* 홈페이지 : <http://www.jeungsimsa.org/>

* tip. 산사체험(템플스테이)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증심사는 860년에 철감선사인 도윤이 창건했고, 1094년에 해조국사가 중건한 후 1443년에 김방이 중수하였다.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1609년에 석경, 수장, 도광이 다시 중수하였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쳤다. 일제강점기 초에는 임제종 운동의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 전쟁 당시인 1951년 4월 22일 오후 9시에는 불상이 있는 오백전과 비로전(사성전)만을 남기고 모든 건물이 화재로 불에 타버렸다. 이때 불타버린 건물은 대웅전, 명부전, 극락전, 회승당, 취백루 등 조선 중기 건물들이었는데, 이들 건물에 봉안되어 있던 불상, 탱화를 비롯하여 범종, 범고, 탑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우리의 고·근대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증심사는 현재 대웅전, 지장전, 비로전, 오백전, 행원당, 적묵당, 범종각, 일주문, 취백루, 불상 보호각, 해우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재로는 삼층석탑과 오층석탑, 범자칠층석탑,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석조보살입상, 오백전, 부도, 비군 등이 있다.

증심사에 서서 절집을 품에 안고 있는 무등산을 바라보면 유달리 마음이 편하다. 무유등등, 등없는 세상을 향한 염원이 이 아늑한 절집, 증심사에서 이뤄질 것도 같다.

● 임제종(臨濟宗)

일제강점기 초기에 전남 송광사에서 성립된 불교의 한 종파다. 일제강점기 때 당시 유일한 종단이었던 원종이 일본 조동종의 보호 아래 놓이자 이에 승려들이 반대에 세운 새로운 종단을 말한다. 이후 광주 등지에 포교당을 설치하는 등 원종과 대치해 활발한 운동을 펼쳤으나 일본 총독부가 종단을 인정하지 않아 출범 1년여 만에 해체되었다.

● 오백전(五百殿)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 13호, 1443년 세종 25년에 전라도 감사였던 김방이 오백나한과 10대제자를 봉안하고 마을의 편안함을 기원하기 위해 지은 전각이다. 증심사에 남아 있는 전각 중 가장 오래되었다.



사직공원 시비

지금 40대를 넘긴 광주사람들에게 사직공원의 추억은 각별하다. 그들의 유년기, 사직공원은 회전목마와 동물원, 수영장이 있는 최고의 놀이터였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사직공원도 나이를 먹었다. 어린 아이들이 찾던 사직공원을 지금은 나이 지긋한 이들이 더 많이 찾는다. 그냥 가볍게 걷고 싶어서. 오래된 숲의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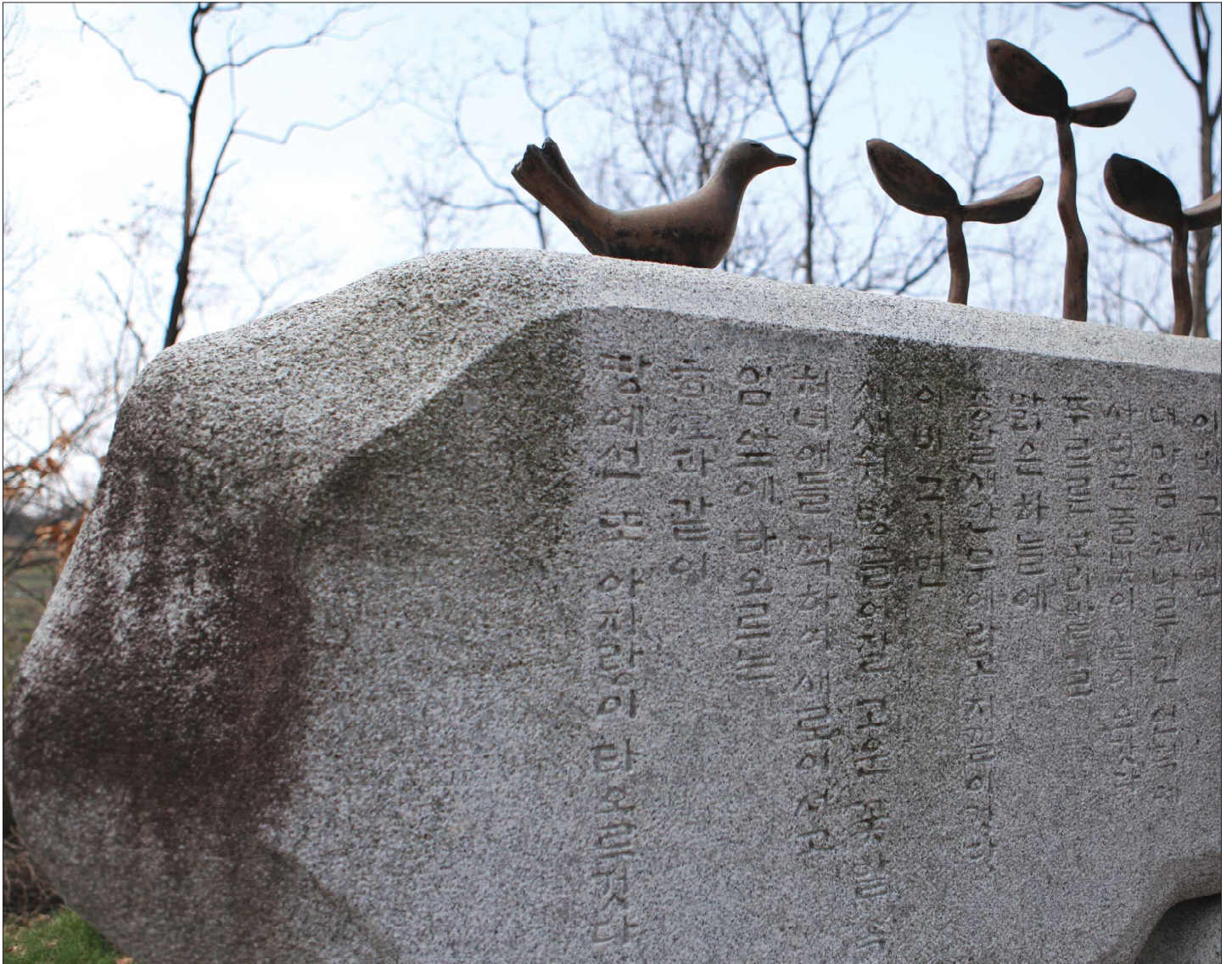
원래 사직공원은 나라의 안전과 풍년을 기원하며 땅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올렸던 사직단이 있던 곳이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 사직단이 헐리고 동물원이 지어졌다.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종묘와 사직단을 헐어버리는 게 동양의 관례였으니 참으로 아픈 식민지 역사가 이 공원을 활취고 간 것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직단의 본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마침내 1991년 사직동물원은 우치공원으로 이사를 한다. 그리고 1994년, 100년 만에 사직제가 부활했다.



과란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변함없는 것은 수목과 화초가 이루는 울창한 숲이다. 매년 4월이면 벚꽃이 만발하여 눈길을 끄는 곳이 바로 이곳 사직공원인데, 꽃과 나무가 전부는 아니다. 사직공원의 숨겨진 명물이 있으니 바로 수많은 시비(詩碑)들이다.

사직공원 정상에 있는 팔각정에는 '의향광주'의 시조로 불리는 조선 선비 눌재(訥齋) 박상(朴祥)의 <송호영당>이라는 시비가 있다. 눌재 박상은 조선 중기 중종 때의 문신이자 문장가로 당대의 칭송을 받았던 16세기 호남 사람



을 대표적 인물이다. 그가 담양부사로 재직 중에 중종반정이 일어난다. 중종의 정실부인은 연산군의 측근인 신수군의 딸이라는 이유로 왕비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폐위가 되고 만다. 이때, 놀재는 단경왕후인 신씨 폐비 부당하며 복위시켜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연산군 측근의 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폐비를 시킨다는 것은 연좌제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그는 귀양을 가게 된다. 조광조가 그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리는 등 역사적 파장이 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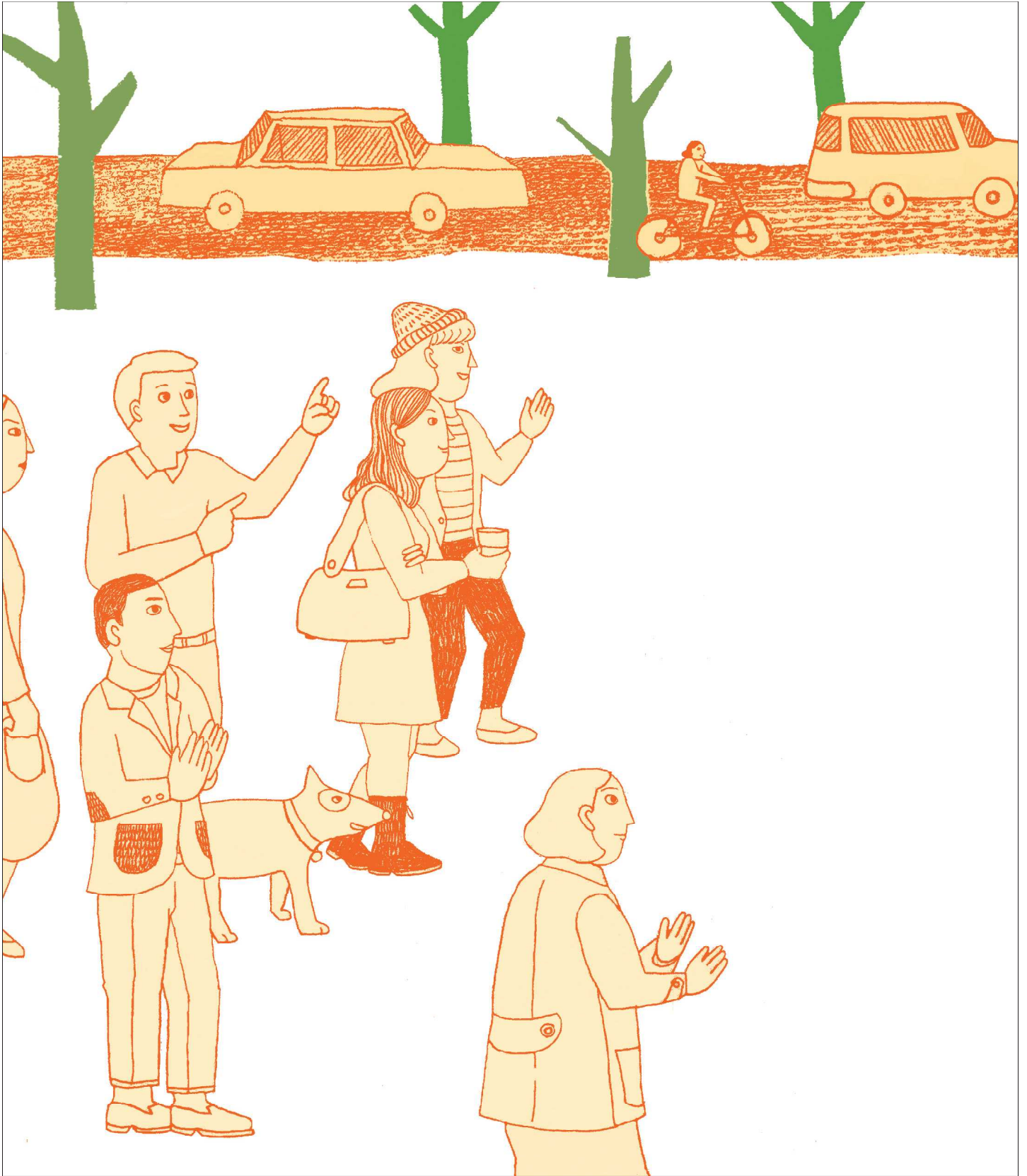
충장공 김덕령(金德齡, 1567~1596)의 시비도 이 공원에 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웠으나 광해군과 선조의 권력싸움에 휘말리며 억울하게 생을 마친 젊은 장수의 처절한 심정을 담은 <춘산(春山)의 불이 나니>는 참으로 절창이다. '춘산에 불이 나니 못다 핀 꽃 다 불는다/ 저 뾰저 불은 끝 물이나 잊거니와/ 이 몸의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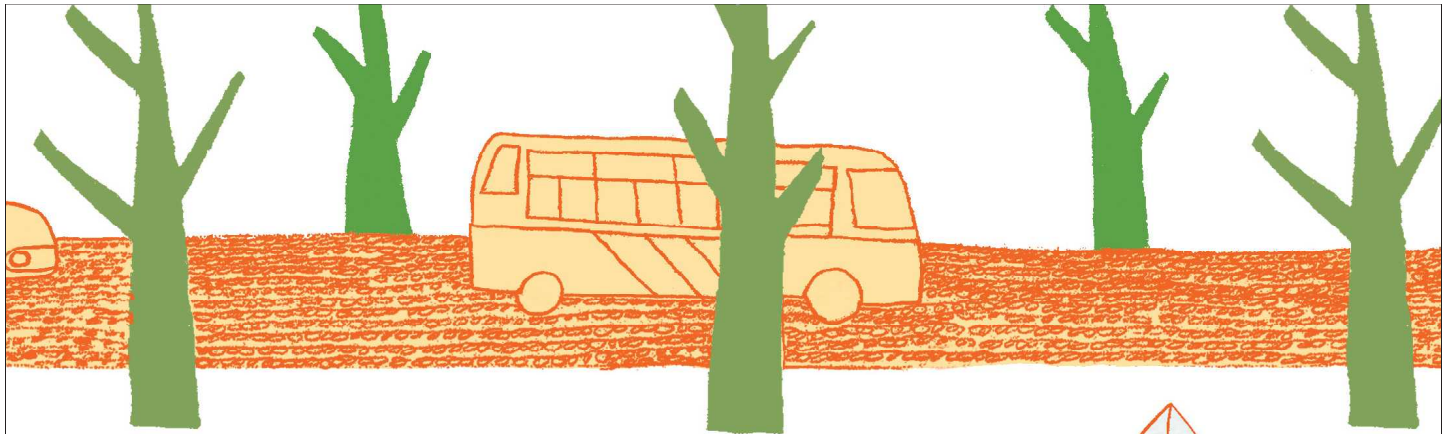


없는 불 나니 끝 물 없어 하노라'

견다보면 백호 임제(白湖 林悌, 1549~1587)의 시비도 나온다. 조선시대 최고의 로맨티스트라고 불리는 백호 임제. '청초 우거진 골에 자난다 누엇난다/ 흥안은 어디 두고 백골만 문혔나니/ 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슬허하노라'. 35세 되던 해 평안도 도사로 발령받아 가는 길에 황진이의 무덤을 찾아가 술상을 차려놓고 지은 시조다. 이 시 때문에 그는 기생을 위해 제를 지냈다하여 관직 삭탈을 당한다.

사직공원의 시비는 총 11개다. 햇빛 좋고 바람 좋은 날에는 보물찾기를 하듯 구석구석에 숨겨진 11개의 시비를 찾아보자.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으로 흐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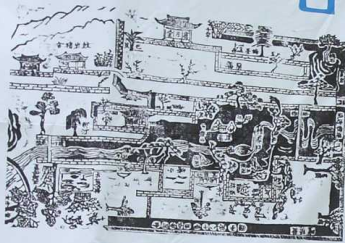


2

광주의 문화고수들은 이곳에서 논다
문화를 마시고 느끼고 적시는 곳

문화관광 상설프로그램
무등산의 사계

선비들의 여름나기



소쇄원 48명 행위요소 재현

소쇄원 48명은 학자이자 문강가로 당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였던 허서 김인후가 소쇄원 주변 경승 48개소의 자연경관을 오연결구의 시로 읊은 것이다.

일 자 2012년 7월 23(월)~28(토), 8월 4일(토) 장 소 소쇄원 주최 주관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은 무등산의 사계를 담은 문화관광 상설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의 사계



10

광주문화재단 문화관광상설프로그램 '무등산의 사계'는

'춘설헌의 봄' 춘설차 따기, 만들기, 마시기 체험 등에 이어
'선비들의 여름나기'를 통해 성산계류탁월도 및 소쇄원 48영 재현을,
가을에는 '조선시대 과거시험 재현'을 통해
관광상품화의 가능성을 확인시키며 큰 화제를 모았다.

문의 062-670-7451.



‘무등산의 사계’ 中 봄



차향 가득한 춘설헌의 봄

봄눈을 녹여 끓여먹는 차가 춘설차다.
무등산의 첫봄은 아직 눈이 채 녹지 않은 산길을 올라
뜨거운 차로 마음속 얼음까지를 녹여내는 바로 이 곳,
춘설헌에서 시작된다.

춘설헌은 화가였을 뿐 아니라 사회운동가였던 의재 허백련이 1958년에 지은 화실이자 호남 제일의 살롱이었다. 의재선생이 머무는 동안 춘설헌에는 수많은 사상가와 예술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25시>의 작가 게오르규가 찾아와 “시인은 잠수함의 토끼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자 “동양에서는 난초에 비유한다. 세상이 탁하면 난초가 죽는다.”고 응수를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생의 한가운데>를 쓴 루이제린저도 춘설헌을 찾아왔다고 한다.

혼돈의 시대, 세상의 봄을 기다렸던 사상가와 예술가들이 사랑하던 이곳 춘설헌에서 광주문화재단은 ‘차향 가득한 춘설헌의 봄’이라는 이름을 걸고 무등산 봄을 깊이 호흡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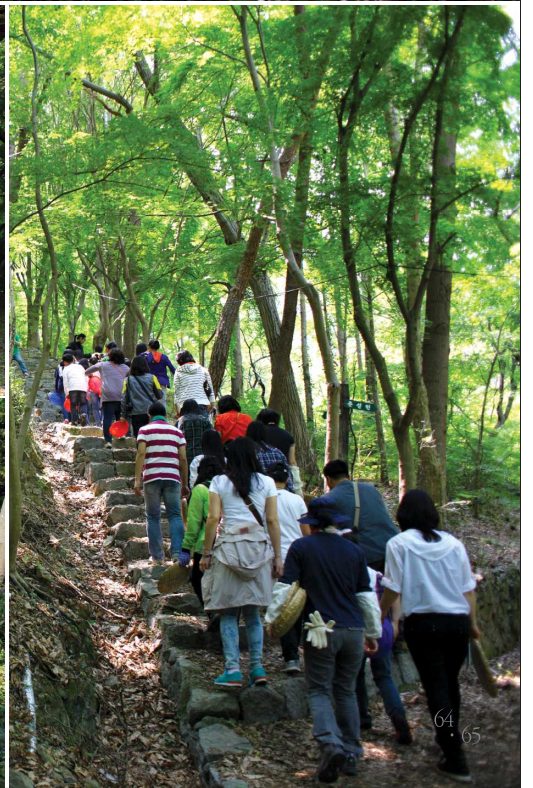
사람들이 모였으되 요란하지 않다. 빨리 걸어서는 아무 것도 느낄 수 없는 춘설헌 산길을 천천히 호흡을 느끼며 걸어 오른다. 춘설헌으로 오르는 길목에서 의재선생의 그림을 먼저 만난다. 의재미술관이 그곳이다. 이어 춘설차 발을 지나 제다 실습장을 거쳐 문향정을 향한다.

문향정을 향하는 길은 아름답다. 계곡의 물소리가 마음의 잡다한 번뇌를 흘려보내다 말하는 것만 같다. 이곳은 원래 의재 선생이 만든 농업기술학교 실습장이었는데 지금은 춘설차 제다공장으로 쓰인다. 문향정을 지나 돌아가면 춘설헌이 있다.

이야기 속을 걸어 한 시대를 품어했던 정신을 만나고, 그 정신의 벗이었던 춘설차를 맛본다. 무등산의 봄이 가슴 안으로 깊어들어오는 것만 같다.







‘무등산의 사계’ 中 여름



성산계류탁열도 재현행사

조선시대 선비들은 삼복더위를 어떻게 견뎠을까?

〈성산계류탁열도(星山溪柳濯熱圖)〉는 16세기 혼돈의 정치상황 속에서
이재(理財)를 좇는 대신 학문과 자기 수양에 힘썼던 조선조 선비들이
환벽당과 식영정 사이의 성산계류에 모여 더위를 씻으며
시회를 즐기는 풍경을 담은 그림이다.
이 그림에는 김성원, 김복억, 김부륜, 오운 등
성산 일대에서 교류했던 당대 쟁쟁한 성리학자와 문장가들이 등장한다.

점잖은 선비들이 버선을 벗어 던지고 계곡에 발을 담그는 이 장면은 김성원의 문집인 〈서하당유고〉와 정암수의 문집인 〈창랑집〉을 통해 전해오고 있다. 올해로 2회를 맞는 탁열도 재현행사는 11명의 선비들이 건너 말을 타고 성산계류에 도착하는 장면부터 시작했다.

더운 여름날, 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 안부 인사를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자연의 순리와 인생을 논한다. 송강 정철이 떡을 감았다는 용소에 둘러앉아 복달임 음식을 먹고, 시회를 하며 맑은 물에 발을 담가 탁족(濯足)하는 선비들. 이들의 모습을 허달용 화백이 화폭에 그대로 담아 성산계류탁열도를 그리고, 정준수 명인의 거문고 연주, 정인봉 명인의 시조창을 통해 그 시대의 풍류를 그대로 재현했다.

행사에 앞서 참가자들의 분장과정과 진행상황도 지켜보고 성산 일대를 둘러볼 겸 오전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환벽당 아래 계곡에서는 아름다운 한 컷을 찍기위한 현장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기다란 계단을 올라 환벽당에 이르니, 아침부터 온 많은 참가자분들이 묵묵히 분장을 하고 있었다. 가짜수염 붙이고, 도포 자루만 걸치면 ‘변신완료!’ 되는 줄 알았는데, 장인의 손길로 콧수염과 턱수염까지 한 올 한



을 불여나가는 과정에 감탄이 절로 나왔다.

〈성산계류탁열도〉. 이 한 폭의 그림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16세기 조선의 여름과 21세기 오늘의 여름이 만난다. 과거를 엿보는 재미가 이런 것일까. 벌써부터 내년 여름이 기대된다.

이야기 속을 걸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신을 만나고, 그 정신의 벗이었던 춘설차를 맛본다. 무등산의 봄이 가슴 안으로 깊어들어오는 것만 같다.

▶ 〈성산계류탁열도〉 재현행사 참여해 직접 선비로 분장하거나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든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www.gjcf.or.kr)나 전화 062-670-7452 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등산의 사계’ 中 가을



나도 과거시험 도전

“꽃이 진다고 새들이 슬퍼 마라. 바람에 날리니 꽃의 탓이 아니로다...”

을사사화로 의기 있는 선비들이 낙화처럼 죽어감을 슬퍼하는 변양정 송순의 한시다.

변양정 송순은 학문의 깊이와 따뜻한 인품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던 당대의 큰 스승이었다.

그 대표적 일화가 바로 정조대왕이 호남 지역을 위한 벌시를 치를 때

‘하여 변양정’이라는 시제를 낸 것이다.

송순이 90살 회방연을 밟았을 때 그의 제자들이 그를 가마에 태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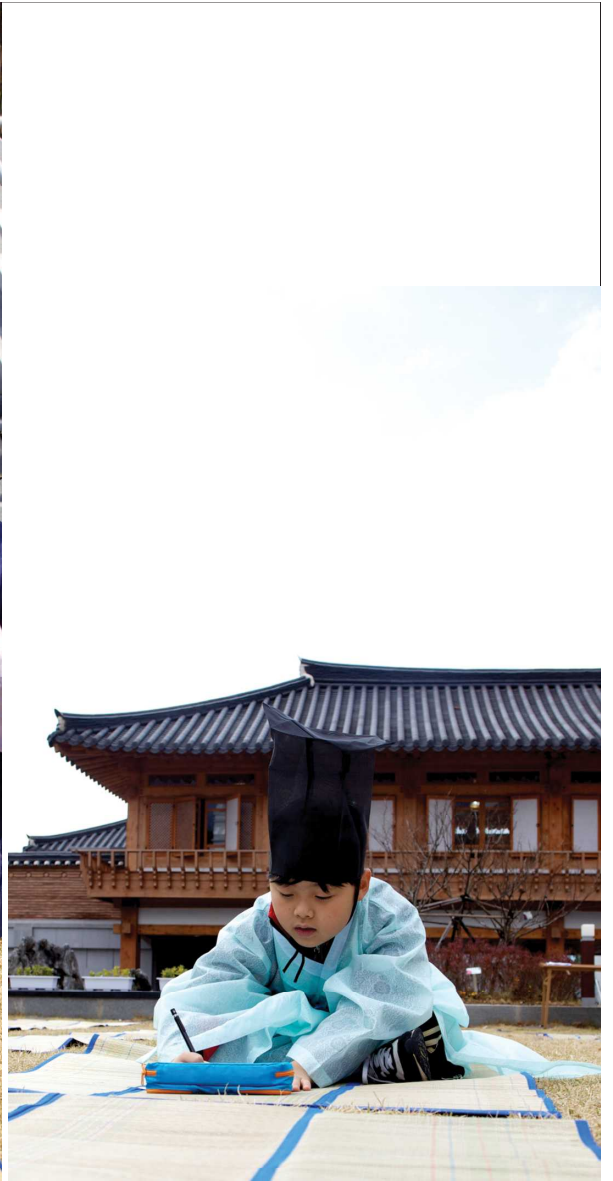
집까지 모셔다 드린 것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쓰라는 내용이었다.

정조는 선비들에게 왜 이 시제를 내었을까. 정조가 꿈꾸는 아름다운 학문풍토를 짐작해볼 수 있다. 사화가 끊이지 않던 시대, 정파를 초월해 제자들이 스승을 섬겼던 이 아름다운 광경은 훗날 동양화가 박행보의 그림에 오롯이 담겼다. 그리고 지난 가을, 무등산 자락에 ‘나도 과거시험 도전!’이라는 참여행사로 다시 이어졌다.

‘나도 과거시험 도전’은 무등산 사계 중 가을스토리다. 1500년대 변양정 송순의 회방연과 그로부터 200여 년 후에 치러진 광주목 과거시험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는 행사로 극단 푸른연극마을(대표 오성환) 단원들이 회방연에서 이뤄진 제자들의 선행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광주시내 초·중학생 100여 명이 유생복장을 하고 과거시험 절차를 그대로 재현해 본 뒤 무등산을 주제로 한 백일장에 참가해 글 솜씨를 뽐냈다.







‘무등산의 사계’ 中 겨울



나는 무등산 이야기꾼

무등산의 정신을 온 몸으로 살다간 총장공 김덕령의 이야기를 아시는가.
무등산 사계 겨울 프로그램은 민중의 영웅으로 살다간 김덕령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전기수, 스토리텔러들의 실감나는 이야기로 마무리된다.

무등산의 영웅, 민중의 영웅인 김덕령의 생애를 오늘의 이야기로 되살리기 위해 입담 좋은 광주시민들이 다 모였다. 어린 시절부터 호랑이를 맨 손으로 때려잡고, 쏜 살보다 더 빨리 말을 달렸으며, 이순신 광재우 등과 함께 왜군들을 떨게 했던 이야기, 백성의 편에 서서 싸우려 나섰지만 권력 지키기에 혈안이 된 이들의 뒷에 걸리고만 기막힌 사연들을 이야기로 풀어낼 것이다.

극적인 생애를 살아간 총장공 김덕령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전기수와 함께 험난했던 한 시대로의 여행을 떠나본다.

* 전기수(傳奇叟)는 조선 후기에 길거리에서 소설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며 돈을 버는 일종의 직업적 이야기꾼

일시 : 2012. 12. 8(토) 13:00~16:00

장소 : 무등산 일대

프로그램 : 전기수와 함께 무등산 보기

주최·주관 :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대상 : 광주시민 약 30여명

문의 : 670-7452











꿈꾸는 이들이 새겨놓은 광주.
알록달록 무지개빛으로 빛나는 광주.

광주의 속살을 헤집고 들어가면
그안은 텅 비어있다. 다 내어준 이의 적멸.



채우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그냥 그대로가 아름다운 광주.

다양한 것들이 광주를 채우리라.
역사와 문화의 변주곡이 광주를 울리리라.

11

역사를 기억하자! 엄숙하게? 발랄하게!

5·18 레드 페스타

RED FESTA

레드 페스타! 맛좋은 이태리 음식 이름같은 이것은 참으로 뜨겁고 젊고 걱정적인 축제의 이름이다. 축제의 시작은 거리 퍼레이드. 80년 5·18 광주민중항쟁의 뜨거운 함성이 지나던 길들, 전남대학교에서 금남로까지를 걷는다.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청소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5·18을 잊지 말자'는 팻말을 들고 거리를 지나는 모습은 울컥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그날의 노래들을 부르고 그날보다 더 뜨겁고 발랄한 춤을 춘다. 금남로에 도착하면 좀더 큰 마당이 펼쳐진다. 5·18을 연극으로 펼치고 밴드, 댄스, 힙합, 미술 공연 등 청소년 동아리의 다양한 공연이 밤새도록 이어진다.

5·18이 이렇게 발랄한 청춘들의 것이었던가? 광장을 가득 채운 열기에 역사는 더욱 젊어지고 생생해진다. 역사를 기억하되 엄숙주의에 붙들리지 않는다. 무한대의 끼와 에너지, 그리고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퍼포먼스와 공연을 펼친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려하지 않고 그냥 내 안의 열기를 느껴본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축제인 '5·18 레드 페스타(RED FESTA)'다.

2004년에 시작해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이 축제는 청소년들이 5·18 민중항쟁 역사의 현장을 재현하며 5월 정신을 계승하는 장(場)이다. 5월 26일(토)부터 27일(일) 새벽 6시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된다. 레드페스타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의 다양한 끼와 상상력으로 재해석된 80년 5월 광주와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현실에 대한 생각도 만날 수 있다.





이 축제가 열리면 광주 금남로에는 만 하루 동안 학생들의 숙소가 될 텐트가 세워진다. 한쪽에는 5·18당시 희생당한 시민들을 기리는 5월 분향소와 당시 사진전시 공간이 들어서고, 반대쪽에는 21세기 현대를 사는 10대들의 민주화 운동이 진행된다. 그들이 속한 학교와 사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목소리를 낸 그림과 글, 조형물들. 학교폭력, 왕따 문제, 학원철폐, 학생인권 등의 문제부터 어른들의 무분별한 성상품화, 학력으로 줄 세우기 등 그 다양한 목소리가 밥벌이에 무감각해진 어른들을 깨운다.



기가 바로 레페인의 해방촌, 금남로!

20120526
(재)518기념재단, 518 RED FEDTA 행사





12 그해 봄날은 정말 아름다웠을까

뮤지컬 화려한 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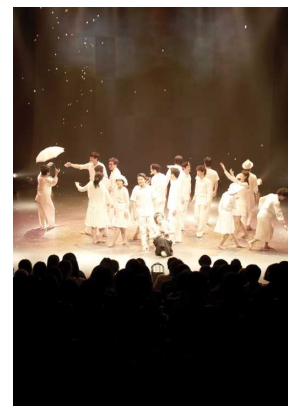
소풍가는 날, 하얀 꽃 비 너머 저승 소풍을 가는 이들. 1980년 5월 억울하게 희생된 자들이 묻힌 망월동이다. 신애가 꽃을 들고 민우의 묘역을 찾는다. 꽃을 놓고 하늘을 보면 마치 민우가 웃는 것처럼 꽃잎이 떨어지고, 음악이 시작된다.

뮤지컬 〈화려한 휴가〉는 동명 영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영화로 이 내용을 접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을 거라는 기대는 금물이다. 대략적인 줄거리는 비슷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공간의 어떠한 제한도 없는 영화를 한정된 공간인 무대로 가지고 왔을 때의 느낌은 확연히 다르다. 80년 암울했던 광주의 사실적인 모습은 더 실감나고 뮤지컬이 주는 맛은 각별하다.

‘화려한 휴가’는 당시 광주를 진압하러 온 계엄군들의 작전명이다. 진압 작전의 참혹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작전명에 따라 광주에는 총성이 울렸다. 아니 뮤지컬을 보고 있노라면 그 총성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퍼붓는 총성이라는 생각이 든다.

총과 칼로 무장한 진압군이 등장하자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사춘기 소년 같은 구애를 펼쳤던 하루하루 그 설렘, 풋풋함,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희망은 무너져 버린다. 그 총성은 평범한 시민들의 소소한 희망을 빼앗아 버린다.

그래서 묻고 있다. 뮤지컬은. 그 아픔은 이제 과거인가. 과거가 진정 과







거로만 남으려면 오히려 그 아픔을 기억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마지막 장면에 5·18 민주 항쟁 중 살아남은 신애를 모든 출연진이 감싸 안아주는 장면이 있다. 역사와의 화해. 세상과의 화해. 뮤지컬 〈화려한 휴가〉가 꿈꾸는 희망의 결말을 마지막 장면이 보여준다.

● 뮤지컬 〈화려한 휴가〉는?

영화 '화려한 휴가'를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은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하여 뮤지컬로 다시 태어났다. 1980년 5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린 광주 시민들의 일상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역사의 비극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던 영화는 2007년 뮤지컬화가 결정된 이후 3년여의 각색과 무대화 과정을 거쳐 2010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초연되었고, 6월 12, 13일 양일간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된다.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사건〉과 뮤지컬 〈블루 사이공〉에서 작업을 함께 한 김정숙 작가와 권호성 연출이 대본과 총연출을 맡았고, 영화 〈인디안 썬머〉, 〈청연〉으로 2002년, 2006년 대중상영화제 음악상을 수상한 미하엘 슈타우다허(경희대 포스트모던학과 교수)가 음악을 담당했다. 5·18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김태종 감독이 기획과 총감독을 맡았다.

목요일엔 공연장에서 데이트하자! **13**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비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한주일의 피로가 쌓여가는 목요일엔 공연을 보자! 연인과 함께여도 좋고, 그냥 흥가분하게 혼자 걸어와도 좋다. 공원이 있고, 문화관이 있고, 국밥집이 있는 편안한 거리에 자리한 빛고을 아트스페이스다.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5층)

/ 빛고을시민문화관 별관

* 공연 및 예매문의:

062)670-7913(공연전시팀)

빛고을시민문화관 별관 건물인 아트스페이스는 붉은 벽돌이 주는 아늑함이 묻어난다. 공원물방, 튀김집들, 국밥집들. 그리고 미디어아트 작가들의 작업실과 카페가 있는 골목길에서 계단을 타고 오르면, 아담한 소극장(5층)이 있다. 아담하기에 무대와 객석은 더욱 친밀하다. 2011년 11월 소리꾼 박애리와 B-boy 팝핀 현준의 개관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무대에 따뜻한 불이 들어오고, 공연이 시작된다.

목요상설무대는 누구나 갈 수 있는 열린 공연이다. 전통국악부터 퓨전국악, 피아노 연주, 무용, 바이올린 및 플루트 독주, 성악, 합창 등 무대를 채우는 공연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신진 예술인 및 단체에게 무대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지만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무대에 설 팀을 선정하기에, 지역의 특색이 묻어나면서도 실력 있는 예술가들의 수준 높은 공연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지금도 이 무대에서 만났던 '김수연의 바이올린 독주회 <아름다운 여행>'의 아름다운 선율이 떠오른다. 좌석이 부족해 보조의자까지 동원된 객석. 서양음악사에 크게 기여







한 바흐, 베토벤, 브람스의 작품 연주로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특징과 연주기법의 차이까지 느낄 수 있었다.

약 1시간 동안 공연되는 목요상설무대, 조금 빨리 와서 골목길 국밥 광주 시내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공연나들이를 와도 좋고, 연인들의 목요일 저녁 데이트로도 추천이다.

●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목요상설무대**

매주 목요일 빛고을 아트스페이스에서는 특별한 공연이 펼쳐진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진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게 충분한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레퍼토리를 개발하여 광주 시민에게 풍성한 공연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획공연프로그램이다.



14 유년의 추억을 예술로 되살리다

사직공원 아트쥬 Art Zoo

1991년 사직공원 동물원이 우치동물원으로 이사를 하고나서 많은 추억들이 길을 잃었다. 그런데 몇해 전부터 5월 5일이 되면 이곳을 떠난 동물들이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 정말이냐고? 그렇다. 하지만 모양이 좀 달라졌다. 바로 예술 동물원, 아트쥬(ART ZOO)다.

(주)아트쥬, 양림동주민자치위원회, 문화TV, 광주문화재단, 마을기업 홀리스토리, 광주공예협동조합, 재능기부센터 등이 참여해 만든 문화 버라이어티 '아트쥬'는 기발하고도 다양한 동물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별난 페스티벌이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는 호랑이와 사자, 코끼리가 뛰어 노는 모습을 담은 작품은 대형 모니터 6대로 선보였다. 사직공원의 나무숲 가운데 디지털 TV가 놓여있다. 현실의 숲과 모니터의 숲은 잘 어울린다. 자연친화적 설치미술이다.

미디어라는 최첨단 기술에 힘입어 사라졌던 호랑이와 사자, 코끼리 등이 돌아왔다. 되살아난 동물들은 거꾸로 걸어 다니는 묘기(?)도 보여준다. 미디어 예술이기에 환상이 구현되는 것이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국내외 작가들의 기발한 아트쥬 작품들. 동물을 의인화하여 익살스럽게 표현한 작품도 있고, 아이들이 타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품도 있다. 아이들은 예술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 위에 마음껏 낙서하고, 만지고, 밟고 올라가고, 매달리고, 미끄럼을 타고 논다.



예술동물원 아트쥬(ART ZOO)에

대해 궁금하다면

<http://www.artzoo.co.kr>로

오세요

전화는 070-4240-0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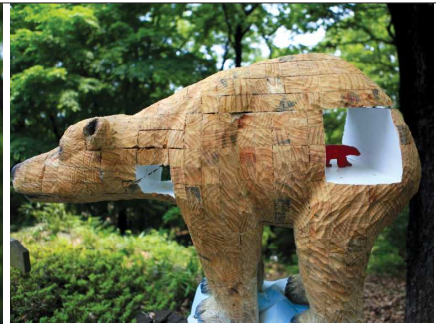




아트마켓과 숲속의 도서관, 동물원 콘서트, 동물원 역사탐험 등 다양한 시민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했다. 무료 체험 프로그램으로 쇼핑백 만들기, 북아트, 동화주인공 뱃지 만들기 등 예술, 동물과 관련지어 쉽고도 유용한 체험들이 준비됐다. 우치동물원 수의사인 최종욱 씨의 팬 사인회도 있었는데, ‘동물원’이라는 취지에 딱 맞는 사인회가 아니었나 싶다.

아트주 페스티벌은 밤에도 빛을 발한다. 작품마다 조명이 들어오고 그 조명들은 곳곳의 가로등이 되어 산책길을 비춘다.





사직공공예술 프로젝트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던 사직단과 70년대 호남지역 유일의 동물원과 야외 수영장 등 많은 이들의 추억과 흔적을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인 도심공원, 사직공원. 이곳이 자연친화적 문화예술공원으로 탈바꿈됐다.



예술동물원 아트주(ART ZOO)에
대해 궁금하다면
<http://www.artzoo.co.kr>로
오세요.
전화는 070-4240-0976



생태공간을 최대한 보존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물론 사직공공예술 프로젝트로 차세대 건축계 작가 5명의 예술작품을 공원 곳곳에 설치했다.

김영준 작가의 <스텝>, 이민아 작가의 <기슭>, 조민석 작가의 <사직공원 빈집>, 박동준 작가의 <흔적>, 신혜원 작가의 <흐르는 풍경> 이렇게 5가지 작품은 사직공원의 자연과 배드민턴장의 낡은 등나무 벤치와 공원관리사무소, 옛 수영장 등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예술의 옷을 입혀 재탄생 시켰다.

공원입구에서 만날 수 있는 김영준 작가의 <스텝>! 약 80m 길이로 높낮이가 심한 언덕을 그대로 살리고, 계단 수십 개를 교차시켜 놓아 골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계단과 언덕은 자유롭게 앉거나 기댈 수 있기에 소공연장, 벼룩시장, 야외갤러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오후 시간 아름다운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받으며 걸을 수 있는 도





심 속 숲길! 이민아 작가의 공원풍경 2 〈기슭〉은
약 144m의 산책로이다.

음지를 이겨내는 건강한 풀과 꽃, 새순, 단풍
과 낙엽더미로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이 그림
같은 길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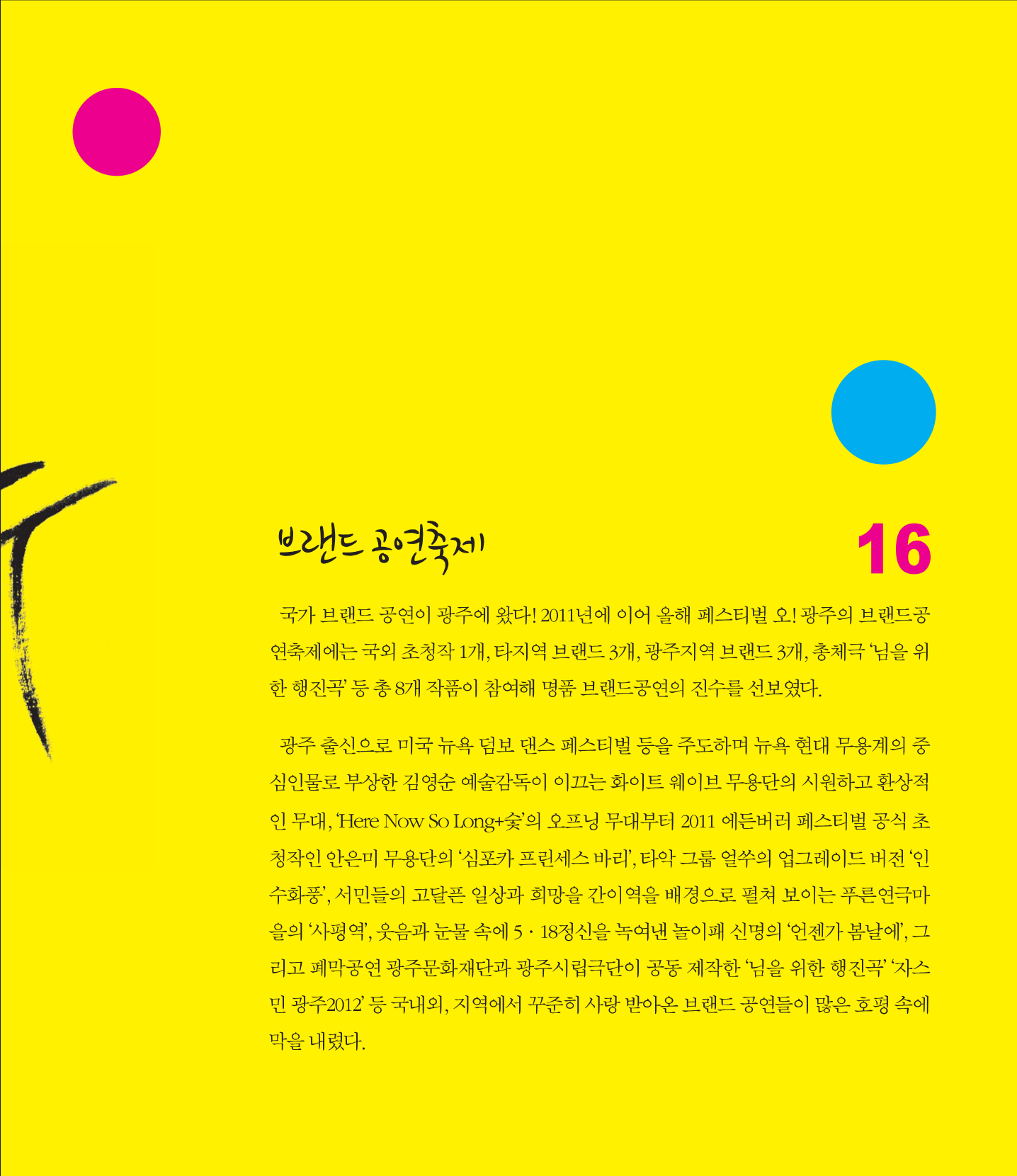
자연 속에 조심스레 끼워진 예술! 이제 사직
공원을 산책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시민들
은 이 공간속에서 편안하게 즐기면, 그걸로 될
듯하다.

▶ 사직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위치

김영준 작가의 〈스텝〉 - 옛 KBS 방송국 입구 도로 절개지
이민아 작가의 〈기슭〉 - 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 옆 산책로
조민석 작가의 〈사직공원빈집〉 - 퍼즐러 및 배드민턴장
박동준 작가의 〈흔적〉 - 공원관리사무소
신혜원 작가의 〈흐르는 풍경〉 - 옛 수영장 용지

Wahlberechtigte
2. 2. 2. 2.
2. 2. 2. 2.





브랜드 공연축제

16

국가 브랜드 공연이 광주에 왔다! 2011년에 이어 올해 페스티벌 오! 광주의 브랜드 공연축제에는 국외 초청작 1개, 타지역 브랜드 3개, 광주지역 브랜드 3개, 총체극 '님을 위한 행진곡' 등 총 8개 작품이 참여해 명품 브랜드공연의 진수를 선보였다.

광주 출신으로 미국 뉴욕 덤보 댄스 페스티벌 등을 주도하며 뉴욕 현대 무용계의 중심인물로 부상한 김영순 예술감독이 이끄는 화이트 웨이브 무용단의 시원하고 환상적인 무대, 'Here Now So Long+쑈'의 오프닝 무대부터 2011 에든버러 페스티벌 공식 초청작인 안은미 무용단의 '심포카 프린세스 바리', 타악 그룹 얼쑤의 업그레이드 버전 '인수화풍', 서민들의 고달픈 일상과 희망을 간이역을 배경으로 펼쳐 보이는 푸른연극마을의 '사평역', 웃음과 눈물 속에 5·18정신을 녹여낸 놀이패 신명의 '언젠가 봄날에', 그리고 폐막공연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시립극단이 공동 제작한 '님을 위한 행진곡' '차스민 광주2012' 등 국내외, 지역에서 꾸준히 사랑 받아온 브랜드 공연들이 많은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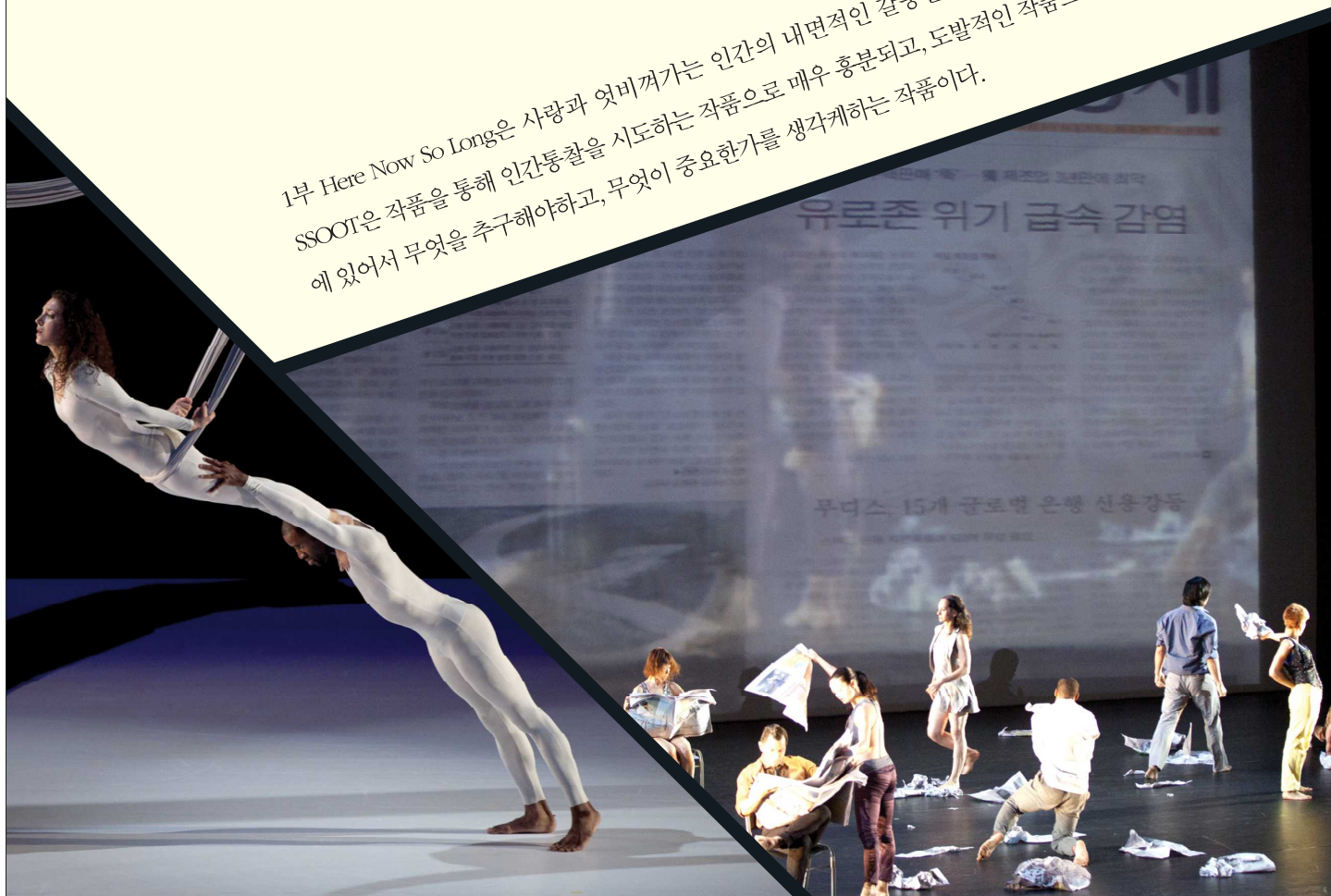
김영순무용단



Here Now So Long +

2012년 6월 23일

1부 Here Now So Long은 사랑과 잊비껴가는 인간의 내면적인 갈등을 표현하고 있으며, 2부  SSOOT은 작품을 통해 인간통찰을 시도하는 작품으로 매우 흥분되고, 도발적인 작품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무엇을 추구해야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케하는 작품이다.



중앙국악관현악단



춤추는 관현악

2012년 6월 27일

중앙국악관현악기획공연<춤추는 관현악>은국악관현악 사운드를 확장하기 위해 기존 국악관현악 편성에 'DIGITAL'악기 음원을 더한 작품이다. 전체 프로그램은 기존 민요 선율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인이 우리의 민요를 더욱 쉽게 듣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타악그룹 “일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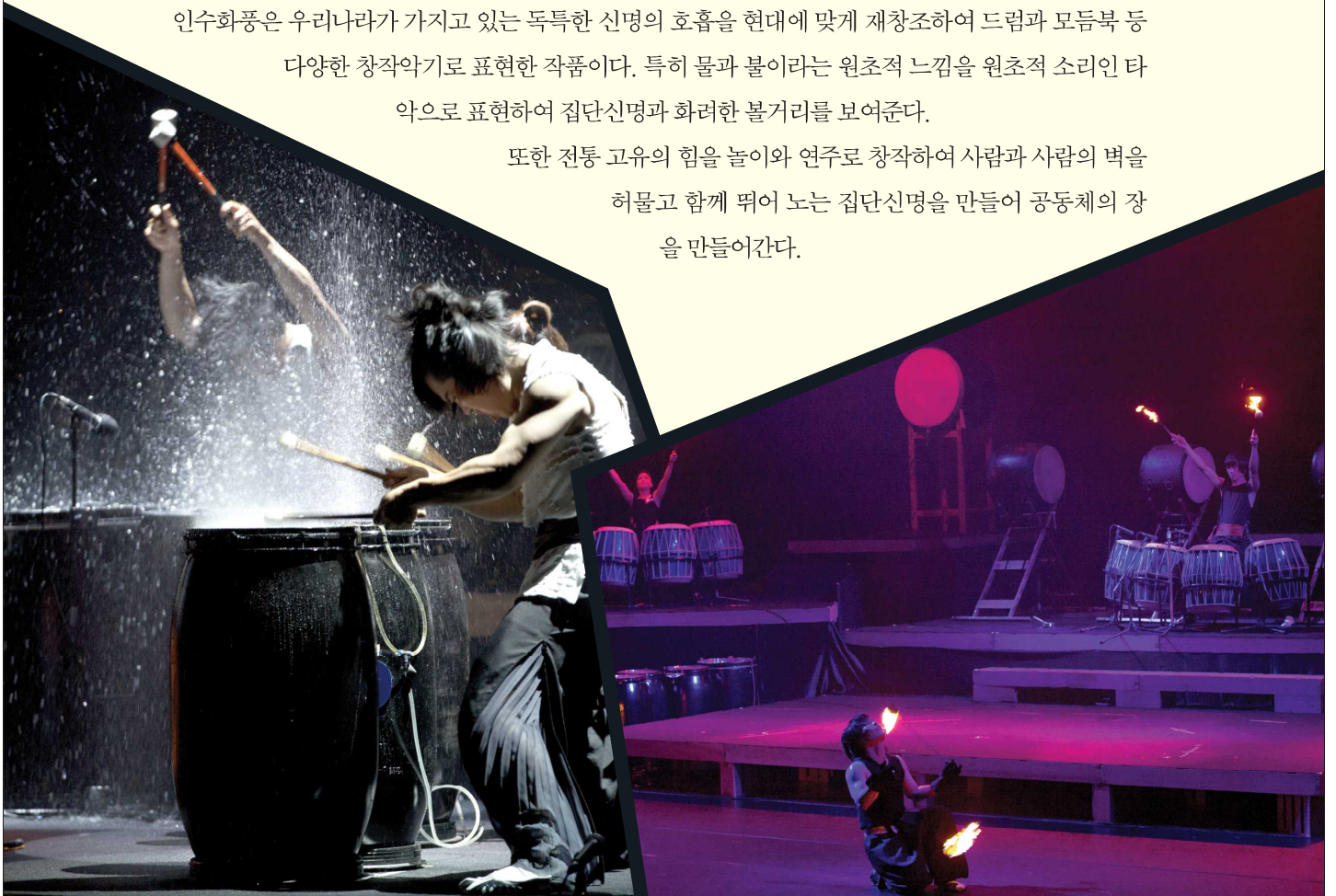
인수화풍

2012년 7월 1일

물과 불이 타악과 만나 신명의 바람을 일으킨다.

인수화풍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명의 호흡을 현대에 맞게 재창조하여 드럼과 모듬북 등 다양한 창작악기로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물과 불이라는 원초적 느낌을 원초적 소리인 타악으로 표현하여 집단신명과 화려한 불거리를 보여준다.

또한 전통 고유의 힘을 놀이와 연주로 창작하여 사람과 사람의 벽을 허물고 함께 뛰어 노는 집단신명을 만들어 공동체의 장을 만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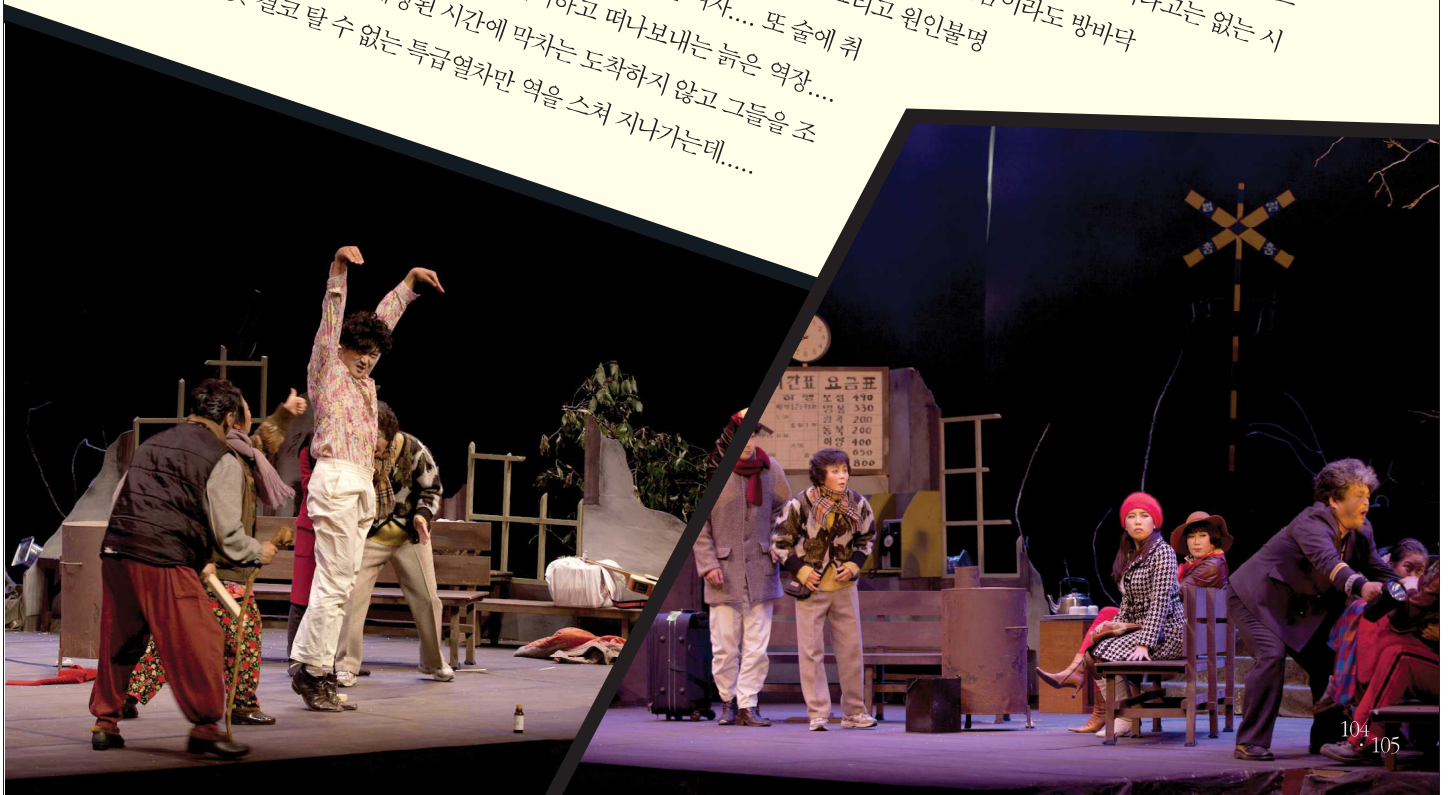


푸른연극마을

시평역

2012년 7월 3일

병에 찌든 산골 노인, 보안법의 사슬에 걸려 청춘을 감옥에 반친 장기수,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여자, 돈 받으
러 산골까지 왔다가 있는 돈까지 내준 서울의 식당 여사장. 자신보다 눈썹 만큼도 나을 것이라고는 없는 시
골 사람들에게 해산물, 건어물을 팔아 하루를 연명하는 아낙, 여섯 살 난 딸만큼이라도 방바닥
따뜻한 곳에서 키워보겠노라고 약을 들고 팔러 다니는 남자... 그리고 원인불명
의 임신을 한 채 역 대합실에 기거하고 있는 미친 여자.... 또 술에 취
한 거리의 시인, 이러한 이들을 맞이하고 떠나보내는 늙은 역장....
그러나 오늘 따라 예정된 시간에 막차는 도착하지 않고 그들을 조
롱하듯 결코 탈 수 없는 특급열차만 역을 스쳐 지나가는데.....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2012년 7월 7일

마법에 걸려 백조로 변하는 오데트 공주와 그녀를 구하려는 지그프리트 왕자, 이들을 지배하려는 악마의 싸움이 주된 내용으로, “운명(악마)과 사랑(왕자)”의 싸움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들었다. 궁중무도회의 화려한 민속춤, 블루톤 호숫가에서 백조들이 펼치는 환상적인 군무, 청초한 오데트 공주와 사악한 흑조 오딜을 한명의 발레리나가 춤추는 설정은 〈백조의 호수〉가 갖고 있는 매력이 될 것이다.



안은미무용단



심포카 프린세스 바리

2012년 7월 11일

“버림받은 것들이 세상을 구원하리라”

광주문화재단의 브랜드공연축제로 만나게 된 심포카 프린세스 바리. 사실 ‘바리’는 강인한 여성상의 아이콘이다. 심청이, 춘향이에 뒤지지 않는 에너지와 역동성을 지녔다. 부모에게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부모를 구하는 것은 진정한 복수일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고, 못 배운 자식이 고향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공감하는 역설이 아닌가.

왕 : (출산을 앞둔 왕비 앞에서) 아들! 아들! 아들!

왕비 : (왕의 말을 천연하게 받아들이며) 아들! 아들! 아들!

왕 : 또 딸이나? 별궁을 지어줘라, 또 딸이나? 별궁을 지어줘라... (7번째에도 딸을 낳고 화가 나서) 또 딸이나? 갖다버려라, 버려!

끝내 고향을 치며 좌절하는 왕. 혼례를 일년 미뤄야 아들을 낳고, 길하다는 예언을 무시하고 결혼한 탓에 첫째, 둘째, 셋째... 결국 일곱째까지 딸로 태어난다. 왕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일곱째 딸인 바리공주를 내다 버린다. 세월이 지나고 병이든 왕과 왕비. 저승의 생명수만 이들을 살릴 수 있거늘 여섯 공주 모두 부모를 위해 저승에 가는 것을 거부한다.

이때 버려졌으나 어느 노부부의 손에 길러진 바리공주 등장, 자신을 버린 부모





▶ **바리공주 설화**

옛 한국의 어느 왕이 있었다. 혼례를 일년 미루어야 아이들을 낳고 길하다는 예언을 무시하고 결혼한 탓에 아이들을 낳지 못하였다. 딸만 계속 낳다가 마침내 일곱째도 딸로 태어나자 내다 버린다. 하지만 버려진 공주 바리는 한 노부부에 의해 양육되었다. 후에 왕과 왕비가 죽을 병이 들어 점을 쳐 보니 저승의 생명수로만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여섯 공주 모두가 부모를 위해 저승에 가길 거부했는데 바리공주가 이를 알게 되어, 저승길로 나선다. 저승 수문장이 바리공주와 일곱 해를 살고 일곱 아이들을 낳아야 약을 주겠다고 하였다. 바리공주가 그 조건을 채운 뒤 수문장과 일곱 아이들과 함께 약을 갖고 이승에 돌아오는데, 궁에서 나오는 왕과 왕비의 상여와 마주쳐, 가져온 영약으로 되살렸다.

▶ **영국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의 정신을 치유하려는 목적으로 1947년부터 시작된 이 축제는 해마다 8월 중순부터 3주 동안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공연 축제이다. 페스티벌이 시작될 당시 초청 받지 못한 공연팀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공연하였던 '주변'이란 뜻의 '프린지(fringe)'로 인하여 에든버러는 축제의 도시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이나, 그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저승으로 향하는데...

우리나라의 전래 설화인 바리공주 이야기를 무용으로 재해석한 안은미 무용단의 <심포카 프린세스 바리>. 무척이나 생소한 단어 '심포카'는 안은미 씨가 만들어 낸 신조어로 '춤과 심포닉 오케스트라의 조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무용수들의 손짓과 발짓이 오고가는 무대 뒤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과 테크노 등을 직접 연주했다.

춤과 함께 공연 중간 중간에는 소리꾼이 등장해 노래하며 (춤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난해할 법한 내용을 이야기해준다. 이 작품은 2011년 영국 에든버러 축제 공연 시 많은 찬사를 받았다. 파격적인 구성과 독특한 안무, 인상적인 몸놀림이 90분 동안 관객을 사로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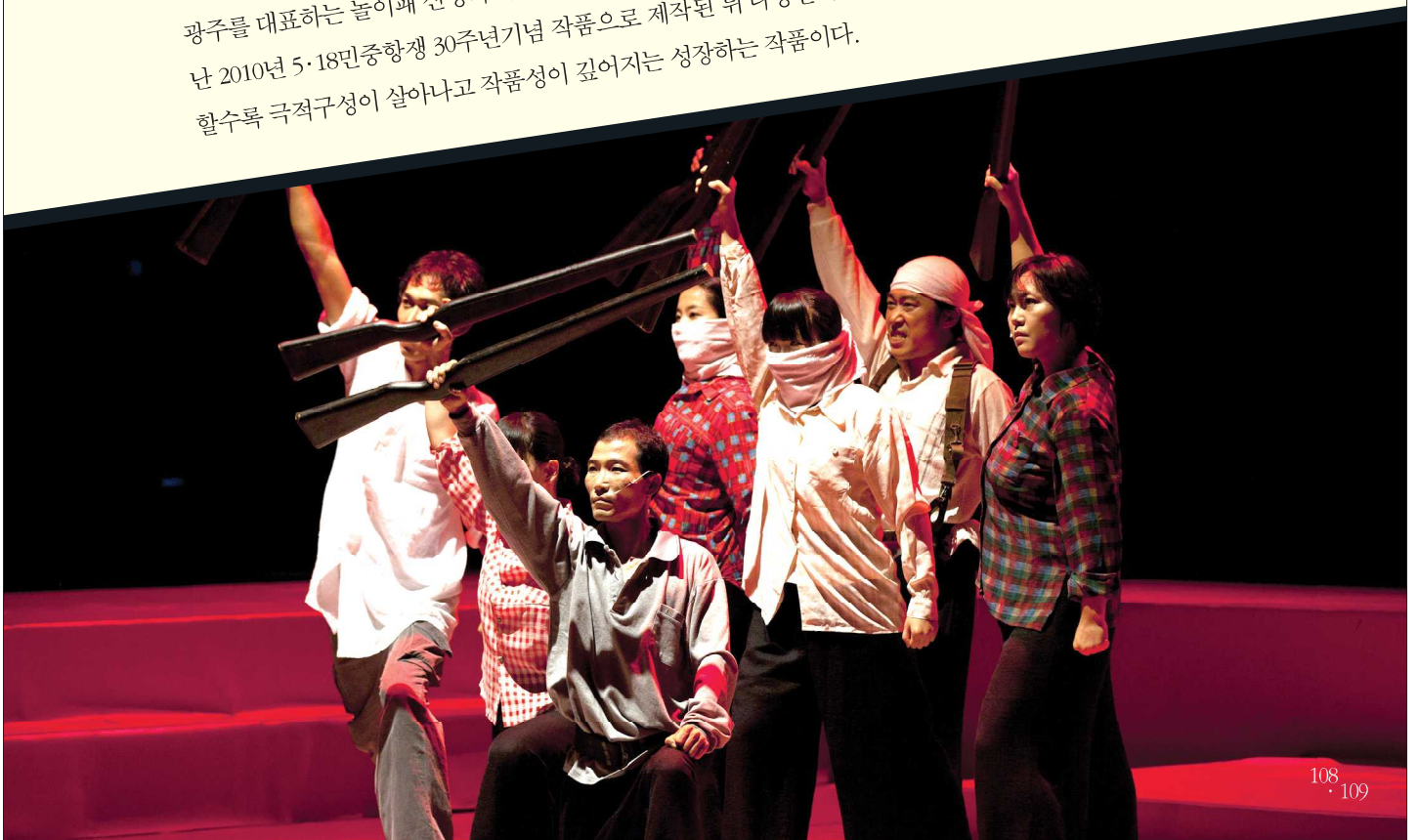
놀이패 신명



언젠가 봄날에

2012년 7월 14일

광주를 대표하는 놀이패 신명의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 창작탈극과 소리, 춤이 어우러진 한국형 뮤지컬이다. 지난 2010년 5·18민중항쟁 30주년기념 작품으로 제작된 뒤 다양한 무대에서 선을 보여 온 작품인데, 횃수를 거둬 할수록 극적구성이 살아나고 작품성이 깊어지는 성장하는 작품이다.





과거와 현재,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긴밀한 구성과 광주민중항쟁 당시 행방불명자들의 이야기를 맛깔스러운 전라도 사투리로 풀어냄으로써 어둡고 암울한 역사의 상처를 해학적이고 감동적으로 재탄생시킨다.

경쇠의 맑은 울림으로 막이 오른다. 늙은 무당 박조금이 굿판을 끝내고 술에 취해 돌아오는 길, 구도청 은행나무 앞에 선다.

“은행나무야, 너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겠지?”

30여 년 전 5월의 사건현장 속에 있던 은행나무. 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그녀의 아들 호석이는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5·18로 인해 지켜지지 않았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구도청 주변은 화려한 변화가로 탈바꿈했다. 그곳에서 5·18의 흔적은 점점 지워지고 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5·18은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도 그 아픈 기억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는 이들이 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딸, 콩 한쪽이라도 나눠먹던 가까운 이웃, 동네에서 늘 함께 놀던 동무, 임산부에 어린아이까지... 이제까지



내 옆에서 함께 했던 이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이들에게는 조금 전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다.

5·18 당시 희생돼 암매장을 당한 채 30년 동안 이승을 헤매는 3명의 영혼들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무당을 통해 하나 하나 풀어진단다. 아들을 만나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를 듣고, 무당은 이들을 저승으로 떠나보낸다.

● 놀이패 신명

광주, 전남지역 미당극의 효시인 '고구마'를 시작으로 '돼지풀이', '호랑이놀이', '광대', '일어서는 사람들' 등 '전라도 미당극'의 맥을 이어온 전문 미당극 연희단체다. 전남 담양군 고서면 주산리 담양예술인창작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T.061-381-7295

광주문화재단



님을 위한 행진곡 - 자스민 광주 2012

2012년 7월 20일

‘젊은 무용수들의 뜨거운 몸짓, 5월을 불러오다’



젊은 무용수들의 열정적인 몸짓이 '5월의 기억과 희망'을 이야기했다. 광주문화재단이 제작한 '님을 위한 행진곡-자스민광주 2012(총감독 윤상진)'. 80년 5월 그날과 살아남은 이들의 아픔은 '다큐멘터리 댄스 시어터(Documentary Dance Theater)'라는 새로운 형식에 힘입어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민주항쟁의 춤 - 1980년 5월 18일 아침 - 평화시위- 학살 - 그날의 상처를 입은 한 남자의 춤- 3S정책 - 산자들의 몫의 순서로 이어진다.

브랜드 공연의 마지막, 광주 브랜드 공연 “님을 위한 행진곡 - 자스민 광주 2012”

'유쾌, 발랄, 감동이 함께 하는 명품댄스퍼포먼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무대에 오른 이번 공연은 작년에 공연했던 <자스민-광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시작과 끝은 물론이거니와 작품 내내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랫가락은 끊이지 않고 작품 곳곳에 녹아 있다.

때로는 애통하게, 때로는 웅장하게, 때로는 경쾌하게 부르게 되는 노래다. 대사가 거의 없고 몸짓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 예술이지만 그 노랫가락의 분위기만 느낄 수 있어도 작품의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기존에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었던 죽은 자에 대한 엄숙한 추모식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광주 5·18을 겪고 지나온 산 자에 대해 조명을 맞추으로써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다부진 근육질의 몸매에서 풍겨 나오는 저항의 숨소리! 맨발의 배우들이 무대 위를 힘차게 밟는 소리가 32년 전 일요일 오후에 본 그날의 위장복 군화발 소리같이 들린다. 매년 돌아오는 그날의 아픈 기억을 지우기 위해 무던히도 애써보지만 쉽지만은 않다. 1980년 5월 18일(일), 본고사 준비를 위해 학교 도서관에서 보낸 고3의 하루는 길고도 험했다.

어둠속에 빛나는 배우들의 눈빛에서 다시금 32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 공연 내내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상생과 화해의 힘찬 몸짓에서 밝은 마음을 찾을 수가 있었다.

